

경기도 김동연 “개헌,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와의 관련성 설명하고 기득권 내려놔야”

경기도, 9월 4일 오후 2시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 개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개헌에 대해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와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해 분명히 하고, 정치인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추진한다면 반드시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4일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개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

문위원회, 한국정치학회,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가 공동주최한다. 4일 경기도를 시작으로 14일 춘천(강원권), 15일 세종(충청권), 16일 대구(경북권), 25일 부산(경남권), 26일 광주(호남, 제주) 등 전국을 순회하며 열릴 예정이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역대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했는데 이제까지 진전이 없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첫 번째는 과연 이 문제가 우리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와

어떻게 관련돼 있는지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한다”며 “자살률 1등, 출산율 꼴찌에서 1등, 기후 문제와 경제위기 등 이런 상황에서 정치판 자체가 바뀌고 권력구조 자체가 바뀌고 그럼으로써 경제, 산업, 사회, 교육이 바뀌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볼 때 개헌은 먼 나라 강 건너 불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기득권 문제라고 생각한다. 권력구조 개편 등을 포함한 개헌 문제나 정치개혁 등 모든 문제는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의 먼저 내려놓기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부터 이 문제가 어떻게 국민의 삶과 연결되고 어떻게 하면 기득권 내려놓고 이걸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부터 반성하고 성찰하고 추진하면 좋겠다. 국민을 위해서 정말 봉사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저는 반드시 이루어내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작년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치개혁공동위원장으로 통과시킨 “민주당부터 솔선하겠다. 정치공학 내 선거의 유불리, 앞으로의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정치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결의문 내용을 환기하며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의 선도적 실천 의지를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개헌 과정에서 국민 참여와 상시적·단계적 개헌 절차를 도입하기 위한 ‘개헌절차법’ 제정이 논의됐다. 김범상/기자

경북도,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경북관광 매력 전파

말레이시아 최대 국제관광박람회 참가, 경북관광 마케팅 총력

경북도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는 지난 9월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 말레이시아 국제관광박람회(MATTA FAIR 2023)와 연계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현지 관광객 대거 유치를 위한 홍보 판촉 활동을 펼쳤다. 도와 공사는 ‘가을·겨울의 정취’라는 주제로 한국관광홍보관 내 경상북도 홍보관을 운영하며 도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인기 드라마 촬영지, 가을 축제 등 테마별 관광 콘텐츠를 소개함으로써 큰 호응을 얻었다. 또 영상과 사진을 활용한 프레젠테이션과 퀴즈쇼 진행을 통해 경북에 관한 관심과 흥미를 극대화했다. 특히, 말레이시아 내 높은 인구 비중을 차지하는 무슬림을 대상으로 친화 시설 안내 등 맞춤형 상담을 진행해 큰 주목을 끌었다.



아울러, 지난 5월 개최한 ‘2023 말레이시아 국제 경북관광교류전’ 이후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현지 여행업계 및 유관기관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신규 판로 개척에 힘쓰며 경북 관광의 입지를 견고히 다지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또 5월 ‘관광교류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 말레이시아 여행사협회(MATTA)와 간담회를 통해 말레이시아 관광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공동 마케팅 전략 및 10월 추진 예정인 팸투어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그뿐만 아니라 대형여행사이자 경북 협력사인 ‘APPLE VACATIONS’와의 간담회에서 관광 상품 운영 현황과 애로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사항을 청취하고, 울릉도를 포함한 경상북도 동절기 상품 판촉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외에도 AIR LINK, PARLO TOURS, GTT, SMART MUSLIM 등 현지 여행사를 방문해 도내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고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하며 경북 관광상품 출시를 적극 유도하고, 관련 언론 베르나마와의 인터뷰를 통해 경북 관광 인프라와 우수한 역사 문화자원을 말레이시아 전역에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김상철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말레이시아에서 진행한 경북관광 홍보를 통해 현지인들에게 경북의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길 바라며, 여행업계와 지속적인 교류 및 협업을 통해 경북관광상품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전남도 전국체전 홍보관 ‘대구 치맥 축제’서 인기몰이

참여형 홍보관 운영으로 양대 체전 관심도 높여 성공 예감

전남도가 전국 치킨 브랜드가 한자리에 모이는 ‘2023 대구 치맥 페스티벌’에서 전국체전 홍보관을 운영, 큰 인기를 끌어 오는 10~11월 양대체전의 성공 개최를 예감케 했다. 전남도는 지난 3일까지 5일간 대구 두류공원에서 열린 ‘2023 대구 치맥 페스티벌’을 찾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오는 10월과 11월에 전남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홍보 활동을 펼쳤다. 대구 치맥페스티벌은 매년 8월 전국의 치킨 브랜드를 맛볼 수 있는 특색있는 대규모 축제다. 올해는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개최돼 100만 명 이상의 구름 인파가 모였다. 전남도는 여름 밤 분위기에 어울리는 야광팔찌, 예코백, 타올, 천연비누 등의 전국체전 홍보물품을 이벤트에 참여하는 관람객에게 배부했다. 또 체전 키다리 배에로와의 기념촬영, 플랫폼리기, 누리소통망(SNS) 인증샷

올리기, 추억의 뽑기 등 관람객들의 다양한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는 체험형 홍보관을 운영해 큰 인기를 누렸다. 전국체전 홍보관을 방문한 대구의 한 여성 관람객은 “전국체전에 관한 다양한 볼거리와 이벤트가 매우 흥미로웠다”며 “홍보관을 통해 전국체전을 미리 접해보니 더욱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인중 전남도 전국체전기획단장은 “치맥 페스티벌을 통해 15년 만에 전남에서 열리는 양대 체전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며 “앞으로도 체전 성공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해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 8월 23일, 제4차 집행부 준비상황 보고회, 제3차 개폐회식 연계계획 보고회, 8월 29일 도와 시군 전국체전 성공기원대회, 9월 1일 시군 운영부 준비상황 보고회 등 제104회 전국체전과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의 막바지 손님맞이 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제104회 전국체전은 오는 10월 13일

부터 19일까지 목표를 중심으로 22개 시군, 70개 경기장에서 49개 종목이 분산 개최된다.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은 11월 3일부터 8일까지 12개 시군, 38개 경기장에서 31개 종목으로 열린다. 올해 대회는 코로나 일상회복 등으로 스포츠가 주는 특별한 감동이 있는 국민 대축제로 열린다. 국내 선수단과 임원진, 해외 동포 선수단까지 4만여 명이 대거 전남을 방문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종배/기자



서울시, 추석명절 전후 온라인 불법판매식품 집중단속

9월 4일부터 10월 말까지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행위, 거짓 또는 과장 광고 등 집중단속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다가오는 추석명절 전후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선물용 온라인 불법판매, 식품 등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하여 9월 4일부터 10월 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수사대상은 추석 명절 선물용으로 주로 구매하는 건강기능식품과 농수산품, 제수용 식품 등이다. 서울시는 온라인 열린장터(인터넷쇼핑) 사이트에서 거래되는 품목별 제품 무표시사항의 적정기재여부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자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성분 부적합 의심 제품은 구매하여 유관기관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건강기능식품 무신고 온라인 판매 *부적합 성분 검출 등 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 판매 *표시기준 미준수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원산지 거짓, 혼동표시 행위 등이다. 최광수/기자

식품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시민의 건강에 피해를 끼치는 범죄행위이다. 관련 범죄는 아래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추석명절 전후로 온라인 판매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하여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단장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을 통한 선물하기가 자리잡는 추세로, 서울시에서는 부적합 제품으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위해식품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경북도의회,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한젠 걸음

어린이의료정책연구회, 어린이 의료서비스 개선방안 연구용역 마무리

경북도의회 '경상북도 어린이 의료정책 연구회'는 지난 9월 1일 김천의료원 회의실에서 "경북 중소도시 어린이 의료 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의 책임을 맡고 있는 이기호 교수(인제대)는 도내 어린이 의료 인프라 및 의료서비스 현황과 일본 및 미국의 지방 어린이 의료서비스 정책 제도를 분석하여 경상북도의 어린이 의료서비스 개선방안으로 홈케어(홈헬스)서비스의 시범적 도입을 제안했다. 홈케어서비스는 휴일이나 야간에 어린이 환자의 가정을 간호사가 방문하여 홈케어전료센터(가칭)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원격협진을 통해 진료 및 간호서비스, 약 처방 및 투약, 교육,상담 등 포괄적인 1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날 박채아 의원은 어린이 야간 응급환자 발생 시 소아 의료시설이 부족한 경북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소아과 의사 확보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김대진 의원은 이날 최종보고회에 함께 자리한 정용구 김천의료원장으로부터 생생한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청소년소아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방 도시에서 공공병원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시스템 개선과 제도적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연구회의 대표인 조용진 의원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하여 우선적 과제로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의 의료서비스 체계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향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전문가와 도민의 의견을 담아 경상북도에 적합한 어린이 의료체계를 갖추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 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경상북도 어린이 의료정책 연구회'는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로 조용진(김천) 의원을 대표로 김대진(안동), 박선하(비례), 박채아(경산), 손희권(포항), 황명강(비례)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됐으며,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를 의뢰해 경북 내 중소도시에서 발생하는 공통의 문제점인 어린이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윤근수/기자



경북도의회, '전통식품 발굴·계승 연구회' 중간보고회 개최

사라져가는 전통식품의 가치를 다시 보다

경북도의회 '경상북도 전통식품 발굴·계승 연구회'는 30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북지역의 사라져가는 전통식품의 발굴 계승 및 지역향토특산물화를 위한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연구의 책임을 맡은 한기동 교수(영남대)는 도내 전통식품에 대한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식품의 질적 인자(맛, 색, 질감, 영양성, 재료의 차별성)와 외적 인자(전통성, 지역성, 대중성, 발전가능성, 상품성), 경제적 인자(산업화 가능성, 가격경쟁력, 발전 가능성)를 고려하여 향토특산물화 가능성이 높은 전통식품으로 시금장과 콩임치류를 추천했다.

보고회에 참석한 김진업 의원은 전통식품의 상품화를 위해서는 부패, 변질 등 유통기간에 대한 고려가 우선적으로 필요함을 제안했다.

이형식 의원은 시·군 단위의 세부적인 전통식품의 발굴이 어렵다면, 권역별이라도 발굴해서 보다 다양한 지역별 전통식품의 발굴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주문했다.

강만수 의원은 성주에서 시금장에 대한 상품화가 추진됐으나 소비자의 호불호에 따라 대중화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을 언급하고, 산업적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전통식품의 재료를 활용하여 소스개발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권장했다.

연구회의 대표인 이춘우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계기로 시·군별로 잇따르는 지역의 전통식품을 보존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차원에서는 지역별로 직접 찾아서 전통식품의 도감화를 실현시키고, 더 나아가 도의회 차원에서도 힘을 모아 사라져 가는 전통식품의 특성화와 상업화에도 일조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경상북도 전통식품 발굴·계승 연구회'는 이춘우 대표의원원과 강만수, 김진업, 노성환, 이충원, 이형식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11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개발과 입법 대안 마련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

윤근수/기자



부산시의회, 문민정부 출범 30주년 기념 세미나

관내 13개동 방문 민원청취, 해결방안 논의

올해로 문민정부 출범 30주년을 맞이하여 '김영삼 대통령과 부산·울산·경남'이라는 주제로 '문민정부 출범 30주년 기념 세미나'를 9월5일 오전 10시 부산광역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문민정부 출범 30주년 기념 세미나'는 제1회 "문민정부로 가는 민주화 대장정" 제2회 "문민정부의 부패 없는 투명한 나라건설" 제3회 "6.10 민주항쟁 36주년 기념 세미나 및 대담"을 개최했으며, 이번에는 제4회 "김영삼 대통령과 부산·울산·경남"이라는 주제로 지역 발전에 기여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업적을 되

돌아보고, 김영삼 전 대통령과 문민정부를 재조명하기 위한 세미나를 부산에서 개최하고, 이어서 제5회는 9월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문민 개혁과 김영삼 대통령의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문민정부를 재조명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사단법인 김영삼민주센터가 주최하고, 민주화추진협의회가 주관하며 국민의 힘 부산시당, 민주동지회, 부산민주동지회 후원으로 개최된다.

행사는 김덕룡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 겸 민주화추진협의회 이사장의 인사말에 이어, 이성권 부산광역시

부시장과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정의화 전 국회의장, 김무성 민주화추진협의회 회장의 축사가 있다.

이어지는 주제 발표 및 대답에서는 김무성 민주화추진협의회 회장 진행으로 문정수 전 부산광역시장, 김봉조 민주동지회장(전 국회의원), 이채익 국회의원의 주제 발표에 이어 홍인길 전 청와대 총무수석과 안경률 전 의원의 대담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귀 청 카이(곽승개, 郭承凱) 대만총영사가 특별참석한다.

귀청 카이 대만총영사는 고 김영삼 대통령 재임 시기에 각별했던 인연으로 참석한다.

김희태/기자



전국 공항소음, 대구시의회 지방의회에서 해결방안 마련한다

9월 1일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제2차 정기회 개최

지난 9월 1일 대한민국시도의회협의회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2차 정기회에서 제주공항 소음 민원센터 현장 방문 및 공항소음 문제의 공동 해결을 위한 토론 시간을 가졌다.

공항소음 문제의 공동 대응과 적극적인 대책 모색을 위해 구성된 지난 6월 23일 1차 회의를 개최한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는 9월 1일 제주 새마을금고 연수원에서 제2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제2차 정기회에 참석한 11명의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제주공항 소음민원센터에 방문해 그간 피해사례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공항소음의 이해' 특강 및 공항소음 해결을 위한 심도 있는 토론시간을 가졌다. 향후 수립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의 다양한 민원을 취합한 지방의회 차원의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전달하고 원희룡 국토부장관과의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박소영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공항소음 범

령을 보완해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공항소음대책특위가 면밀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며, "본 특위가 전국 공항소음 해결의 대표성을 가진 만큼 공동으로 대처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지역 현안문제도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 "주민 편의 고려한 동의서 징구 방식으로 개선해야"

이 의원 제안으로 정비계획 입안동의서에 추정분담금 변경 가능 설명 추가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은 지난 1일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정비사업 동의서 징구 방식 개선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신통기회 등 서울시가 적극 추진 중인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주민 입장에서 편리하면서도 합리적인 방식으로 동의서를 징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말 서울시 주택정책실은 이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정비계획 입안동의서 양식 내 문구를 수정했다.

기존의 정비계획 입안동의서 양식에는 정비사업추진 동의/반대 선택란 하단에 "본인은 종전가격, 종후가격 및 추정분담금 등을 확인했습니다"라고 모호하게 적혀 있어 민원이 발생하자, 이 의원은 단순 확인보다는 안내된 종후가격이나 추정분담금이 변경될 수 있다는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7월 31일 위 동의서 문구를 "본 동의를 위해 안내된 추정분담금 등은 정비계획안 수립 단계에서 개략 산출된 값으로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 변동될 수 있음"으로 수정하는 공문을 시행했다. 이외에도 이 의원은 "정비사업 동의서 징구 절차에 관한 법령이 미비

하여 입안권자인 구청장 판단에 맡기면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통기회 대상지 중 정비계획 입안동의서를 발부한 3개 구청(강동구, 도봉구, 중랑구)을 확인한 결과, 중앙구청만 주민참여단 의견수렴을 통해 구청뿐 아니라 (가칭)추진위 사무실을 동의서 제출처로 안내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구청 방문·우편 접수만 운영하는 나머지 지역에서 중앙구청의 방식을 적용해달라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신통기회 등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려면 빠른 동의서 징구가 중요하다"며 동의서 제출 방식을 다양화하여 주민 편의성을 높이고 자치구 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는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는 방안,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현장에 파견하여 상담과 함께 동의서를 받는 방안 등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민석 의원은 "깊은 고민 없이 만든 문구 하나, 절차 하나가 현장에서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해가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편집국장:최재은. 부회장:박유석. 임석경 청소년책임보좌: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제호 :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 서울 가 50146 | 등록일 :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경 회 부:대선 (112)	문 화 부:대선 (116)
광고국:1899.9659	사 회 부:대선 (113)	부 동 산 부:대선 (117)
	경 계 부:대선 (114)	오 께 니 언 부:대선 (118)
	스 포 츠 부:대선 (115)	지 방 부:대선 (119)

서울본사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14 스카이벨리2차 708호

경기본사 : 경기 광명시 시청로 7 흥신 에이스텔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강태형.김태희.이기환 의원, 안산시어린이집연합회와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안산시5, 농정해양위), 김태희 의원(안산시2, 경제노동위), 이기환 의원(안산시6, 안전행정부)은 1일 경기도의회 안산상담소에서 안산시어린이집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산시어린이집연합회 신은정 회장 및 관계자 12명이 참석했으며 유보통합에 따른 보육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은정 회장은 "시·도 교육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유아에게 보육료 및 급식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반면, 어린이집 영아(0~2세)를

은 보육료 내에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어 영·유아의 여부에 따라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며, 영유아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선행될 것을 요청했다.

이에 강태형, 김태희, 이기환 의원은 "영아와 유아에 대한 지원은 차별 없이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교육의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도의회에서도 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청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더 나은 보육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4일 '국민공감개헌시민공청회'에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필요성 설파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주최로 경기도청 대강당서 실시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4일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공감개헌 시민공청회'에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주최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자문위 공동위원장인 이상수 법무법인 우성 대표변호사와 이주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총재를 비롯해 조소영 한국공법학회 회장, 권건보 한국헌법학회 회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염 의장은 이 자리에서 축사를 통해 지역의 빠른 성장속도에 비해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이 부족한 점을 들어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염 의장은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이래 올해로 75주년을 맞았고, 과거 9차례 개헌을 거쳐 10번째 헌법을 맞이한 지 36년이 지났다"라고 운을 뗐 뒤 "날로 심해지는 정쟁 일상화와 지역 활거주의 등의 정치 악습으로 인해 그간 흩어졌던 개헌 의지를 하나로 모아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그 어느때보다 빠르게 성장하며 변화하고 있다. 헌법 개정의 필요성도 커졌고, 개정을 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됐다"라며 "개헌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조율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염 의장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미래 지방시대를 위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 제8장에서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지만, 2개의 헌법 조문만으로 지방자치를 규정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자치와 분권에 필요한 제도적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며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 지방분권형 헌법개정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염 의장은 "오늘 이 자리에서 현실적 개헌 방안을 다양하게 논의하며 대한민국 미래를 재설계하는 개헌이라



는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마중물을 마련하길 바란다"라는 바람을 전달했다.

이후 본격적으로 실시된 공청회는 실현가능한 개헌 방안과 개헌절차법 제정 논의 등을 주제로 한 기초발제와 자유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국민공감개헌 시민공청회'는 이날 경기도 행사를 시작으로 강원권, 충청권, 경북권, 경남권, 호남·제주권에서 이달 중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범상/기자

'학대동물 구출' 함께한 김동연 경기도지사 "대한민국 동물복지 수준, 경기도가 한 단계 높일 것"

경기도가 지난 1일 한 동물보호단체가 화성시 팔탄면의 개 번식장에서 구출한 개 약 1천410마리를 도의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인 '반려마루' 등으로 이송해 보호 조치했다.

보호조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 동물보호단체의 누리소통망(SNS) 제보를 받고 긴급 지시를 내려 진행된 것이다. 동물단체는 '어미 배를 갈라 새끼를 꺼내는 등 동물 학대가 있고, 안락사시키거나 죽은 강아지들의 사체를 냉동실에 보관하고 뒷산에 매립했다'고 김동연 지사에 제보했다.

김동연 지사는 2일 '반려마루'에서 생존 동물 구출·이송 상황을 함께하며 "끔찍한 현장에서 구조된 개들을 반려마루로 이송하고 있다", "반려마루는 아직 정식 개관 전이지만 가능한 모든 자원을 투입해 소중한 생명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경기도는 즉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 특별사법경찰단이 현장에 즉각 출동했고, 축산동물복지국이 현장에서 개들을 보호했다"며 "대한민국 동물복지 수준을 이제 한 단계 더 높여야 한다. 변화의 중심 경기도가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도는 제보를 받은 1일 당일 특별사법경찰단과 반려동물과 직원들을 현장으로 보내 약 1천410마리의 생존 개를 확보했다. 해당 번식장은 지자체 신고를 거친 시설이지만 학대 행위 등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도는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번식장 소유주에게 개 소유권 포기 의사를 얻어내 생존한 1천410마리 전원을 구출했다.

1천410마리 중 737마리는 도가 직접 보호 및 지원하는데, 반려마루가 583마리, 도우미견나눔센터가 104마리를 각각 직접 보호한다. 나머지 50마리는 동물보호단체에 보호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도가 직접 보호·지원하는 개 외에는 동물보호단체 등에서 인계해 보호한다.정식 개관을 앞둔 반려마루가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긴급 보호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생존 동물을 보호 시설별 배치 완료하고, 전염병 및 건강검진 등의 절차를 거쳐 입양을 추진한다. 아울러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해 입양 활성화 캠페인도 중점적으로 펼친다. 1천400마리 이상의 개를 화성시 번식장에서 반려마루 등 동물 보호시설까지 이송하는 과정에서 동물보호단체 등 자원봉사자의 도움이 크게 작용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동물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난해 12월 축산산림국을 '축산동물복지국'으로 개편하고 전국 최초로 '동물복지과'와 '반려동물과'를 신설했다. 특별사법경찰단 내 '동물학대방지팀'도 신설해 동물학대 불법행위를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 지난 3월 '양평 개 사체 사건' 같은 동물 학대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불법행위 단속 지시 후 불법 도살 현장을 연이어 적발하고 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 의정부시어린이집연합회와 보육료 및 급식비 분리지원 등 제도개선 방안 논의

1일 의정부시어린이집연합회 간담회... "차별 없는 급식비 지원 반드시 필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이 1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시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과 만나 영아(만0~2세) 어린이집 보육료와 급식비 분리지원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오 의원은 "같은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영아 또는 유아 여부에 따라 지원에 차별이 존재하면 안 된다"며 "영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차별 없는 급식비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해 영·유아들이 균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육료·급식비 분리지원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2월 7일 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자체와 협력해서 돌봄체계를 강화하고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을 보다 확대해 아이 키우는 걱정을 덜게끔 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이 1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시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과 만나 영아(만0~2세) 어린이집 보육료와 급식비 분리지원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오 의원은 "같은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영아 또는 유아 여부에 따라 지원에 차별이 존재하면 안 된다"며 "영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차별 없는 급식비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해 영·유아들이 균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육료·급식비 분리지원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2월 7일 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자체와 협력해서 돌봄체계를 강화하고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을 보다 확대해 아이 키우는 걱정을 덜게끔 하겠다"고 말했다.

만 0세부터 2세까지의 영아에게도 확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의정부시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송은희와 임원진은 "영아들은 어린이집을 이용함에도 보육료 내에 급식비가 포함되어 양질의 급식 지원이 어렵다"라며 "유보통합 전 보육사업 안내의 급식비 항목 삭제 및 보육료에서 급식비를 분리·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또한 우리 의정부시도 조리사 인건비를 지원 해 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오 의원은 지난해 12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영아 어린이집 급식비 분리지원 등 차별 없는 지원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행정을 주문한 바 있다.

김범상/기자

이오수 경기도의원, 발달장애인들의 정서치유를 위한 재활승마 체험

장애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활동 개선을 위한 재활승마 지원 필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4일 수원시 광고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발달장애인과 함께 경기도 축산진흥센터에서 재활승마 체험에 나섰다.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경기도 축산진흥센터 내 승마교육센터에서 진행된 재활승마 체험에는 15명의 발달장애인과 활동보조인 등 30여 명이 참여했으며, 이오수 의원과 축산진흥센터 안용기 소장 등이 함께했다.

재활승마는 승마의 운동 효과를 통한 물리적 치유, 말과의 교감을 통한 정서적 치유 등 장애인들의 재활 치료에 효과가 입증됐으나, 접근성과 경제성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오수 의원의 제안으로 재활승마 체험이 이루어지게 됐다.

재활승마 체험에 앞서 안전교육 등이 이루어졌으며, 실제 승마 체험 외에도 말 손질하기, 먹이 주기 등의

교감 활동과 지문풍선 염서만들기, 말 목각 인형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됐다.

이오수 의원은 "재활승마는 장애인들의 자세교정, 유연성, 균형감각 등의 신체적 기능을 증진시키고, 말과의 교감을 통한 정서적 안정감에도 도움이 된다"며, "장애인들의 신체적·정신적 활동 개선을 위해 재활승마 프로그램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내년 3월 에코팜랜드 준공에 맞춰 재활승마 프로그램 등을 확대할 계획이 있으니, 도내 장애인들이 보다 쉽게 재활승마를 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 축산진흥센터는 그간 승마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견전한 취미활동 지원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올해에는 도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1,600명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센터는 이번 재활승마 체험을 통해 승마 프로그램 도입을 준비할 예정이다. 앞으로 지역 내 장애인들을 위한 재활

김범상/기자

용인중앙시장 첫 별빛마당야시장, 사흘새 8만명 즐겼다

용인특례시, 다양한 먹거리·볼거리·즐길 거리 체험... 젊은 층·지역주민·관광객 몰려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김량장동 용인중앙시장에서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처음 열린 '용인중앙시장 별빛마당 야시장'에 8만 명이 발 디딜 틈이 많은 시민이 찾았다고 5일 밝혔다.

용인중앙시장상인회가 주최·주관하고 용인특례시가 후원해 처음 개최한 야시장에서는 바비큐, 떡볶이, 전, 약과, 수제 맥주 등 각종 먹거리와 다양한 수공예 제품 등을 판매하는 장터가 운영됐다.

시민들은 먹을 것을 구매해 시장 노천에 마련된 간이 식탁으로 옮겨 담소를 나누며 '불금'과 주말을 즐겼다. 노래, 댄스, 버스킹 등 다양한 공연에 박수를 치며 환호하기도 하고 전통주 시음회, 떡메치기, 스탬프 투어, 경품추첨 등 다양한 행사에도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용인중앙시장의 지속적인 노력에 힘입어 야시장에는 젊은 층도 다수 찾았다. 야시장을 찾은 한 20대 청년은 "가격 부담 없이 맛있는 음식도 먹고 공연도 보며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야시장을 주기적으로 마련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기존 상인들도 기대 이상의 결과에 놀라는 반응을 보였다. 용인중앙시장 떡 골목에서 장사를 하는 한 상인은 "용인중앙시장에 이렇게 많이 방문객이 찾은 것은 정말 오랜만이다"라며 "시장이 북적거리면서 장사할 힘이 난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는 추가로 야시장을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시장 활성화를 비롯한 용인중앙시장 일대 도시재생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용인중앙시장 일대는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 주관 지역특화 스마트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됐다. 시는 2026년까지 총사업비 652억5000만원을 투입해 시장 일대 혁신과 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화공간과 청년 창업 공간 등도 조성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용인중앙시장 상인회를 중심으로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긴 시간



동안 함께 고민하며 준비했다"며 "성공적으로 행사가 끝나 기쁘고 특히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다. 다음 행사에서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알차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상/기자

광주시, '대기 및 악취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광주시는 4일 '대기 및 악취 개선 집중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환경부 공모사업인 '광역 단위 대기 개선지원 시범사업(3차년도)'에 응모, 지난 6월 최종 선정됐으며 관내 4·5종 인쇄업 등 6개 사업장의 방지시설을 집중 개선 추진할 계획이다. 업무협약은 광주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등 3개 기관 및 6개 사업장 대표가 참여해 각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도모,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협약에 따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최적 방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한 기술지원을,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는 사업장에 단계별 최적 관리를 위한 기술지원을 제공하게 되며 대상 사업장은 최적 방지시설을 적극 설치하고 시설검증 및 성과분석 등 각 기관과 상호 적극 협력키로 했다. 방세환 시장은 "기관과 사업장의 지속적 소통과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평택시, 포승 어린이 훈훈한 장터 개최

벼룩시장, 장기자랑, 체험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평택시 포승읍(읍장 이의현)은 지난 2일 포승문화복지센터와 포승레조프공원 일원에서 '포승 어린이 훈훈한 장터'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들이 장터를 직접 운영하며 자연스럽게 경제원리를 배우고 자원 재활용을 통한 환경보호 실천과 함께 관내 어린이들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2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해 장기자랑, 벼룩시장, 체험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겼다.

장기자랑에서는 포승읍 주민자치 프로그램인 어린이나타 초청공연을 시작으로 합기도 시범, 노래, 음악출렁기, 방송 댄스 공연 등 어린이들이 다양한 재능을 선보여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알뜰시장에서는 어린이들이 직접 만든 공예품과 다양한 중고 물품을 판매해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또한, 체험 부스에서는 나만의 자이언트안 가방 만들기, 양말목 매트 만들기, 커피박 키링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즐겼다.

특히, 이번 행사는 관내 초등학생 33명으로 구성된 서포터즈단이 행사 기획부터 준비, 체험 부스 운영에 직접 참여해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이의현 포승읍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고 또래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쌓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승 어린이 훈훈한 장터는 10월 중 2회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시현/기자



대부도 상인들이 이민근 안산시장에 감사패 수여... "상권 활성화 앞장"

대부도상인연합회 "대부도 지역발전, 관광 활성화 추진에 감사한 마음"



안산시는 4일 오전 안산시청에서 대부도상인연합회로부터 이민근 시장이 감사패를 수여받았다고 밝혔다.

대부도상인연합회 측은 대부도항로 확·포장공사를 원만히 추진해 대부도 지역발전 및 관광활성화 향상에 따른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연합회 측은 앞서 지난 3월 시작된 '월 1회 대부도 주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결핵 검진과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중) 발급 정책'에 대해서도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정수영 대부도상인연합회 회장은 "음식점 영업 과정에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위해 대부도에 거주하는 상인과 직원들이 시내에 소재한 보건소를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라며 "의료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준 안산시 측에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교통 취약지역 이동 약자를

위해 도입한 수요응답형(DRT) 교통서비스 '똑버스'의 원만한 운영에 대해서도 감사함을 전했다.

앞서 이민근 시장은 대부도를 수도권 대표 관광지로 육성하는 골자의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인구 5만 명이상이 상주하는 자족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감사패를 수여 받은 이민근 시장은 "대부도 시민과 상인들의 원만한 협조로 1차 대부도항로 확·포장 공사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대부도 발전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방아머리 선착장부터 탄도항을 잇는 대부도항로를 확장, 포장하는 사업을 마칠 때까지 원만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대부도 주거지까지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비롯해 하수관로 설치 등 기반 시설을 내실 있게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정부/기자

인천시민들이 그리는 자유공원·중구청 광장의 새로운 모습은?

새로운 도약! 2023 점프점프 중구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9월 1~24일 개최

인천시 중구가 중구청 광장과 자유공원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대시민 아이디어 찾기 '새로운 도약! 2023 점프점프 중구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①중구청 광장 디자인 아이디어, ②자유공원(Freedom park) 르네상스 아이디어 총 2가지 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원도심 발전을 희망하는 인천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먼저 '중구청 광장 아이디어'는 중구의 특성과 이미지를 반영한 중구청 1층 사 앞 광장의 새로운 형태와 발전 방향을 공모하는 분야다. 광장 내 조경, 조명, 문화공간, 조형물 등에 대한 창의

적인 디자인을 제시하면 된다.

'자유공원(Freedom park) 르네상스 아이디어'는 남녀노소 누구나 찾아오고 싶은 자유공원을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분야다. 새우리 시설, 데크 산책로, 동상 등에 대한 리모델링 방향을 제안하면 된다.

공모 참여 희망자는 9월 1일부터 24일까지 제안서 서식에 맞춰 중구청 홈페이지 구민제안방, 국민신문고 공모제안, 국민생각함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구는 이후 실행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효과성, 계속성, 적용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금상 1건, 은상 2건, 동상 4건, 장려상 4건 총 11건을 우수

작으로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향후 중구가 추진할 자유공원 및 중구청 광장 개선 사업 방향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은 제물포 르네상스에 발맞춰 인천 원도심의 역사적 명소인 자유공원과 중구청사의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인천 원도심의 발전을 희망하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김중남/기자



부천의 여성정책! 세계와 공유한다

부천여성친화도시 공부하러 탄자니아 공무원, 부천시여성회관 방문

탄자니아 대통령실 산하 공공서비스 경영 및 거거버넌스, 지역사회개발센터 부, 보건부, 국토부, 교육부 등 총 10개의 부처에서 젠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15명이 오는 6일 오전 9시 30분 부천시여성회관을 방문한다.

2021년부터 23년까지 3년 과정의 '탄자니아 성주류화 및 여성역량강화를

위한 리더십 역량강화' 사업이 코이카를 통하여 진행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부천의 여성친화도시 사례를 공유하고 있던 중, 방문이 가능한 올해 비로소 현장을 오게 됐다.

이들은 부천의 성인지 통계 분석을 통한 여성정책 발굴과정과, 돌봄, 안전, 성인지교육 등의 분야별 여성정책이 지

역의 다양한 이해관계 그룹들과의 거버넌스로 운영되는 사례를 확인하고 전국 유일의 일일지원센터 프로그램도 체험한다.

비대면 연수를 통한 정책이해와 부천시 방문의 경험으로 국가정책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실현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탄자니아 상황과 비교하여 정부 각 부처에서 적용 가능한 정책 내용을 수립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음달 10월 17일에는 도미니카공화국 여성, 가정폭력부 차관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부천시여성회관을 방문할

예정이다. 윤희민/기자



전남도, 25호 민간정원에 '보성 곶망태 요리사의 정원'

정원주 19년 노력... 녹차미로·수선화·수국 주제로 조성

전라남도는 4일 제25호 민간정원으로 등록된 '보성 곶망태 요리사의 정원' 여는 날 행사를 개최했다.

안상현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개인 보성군수 등이 참석해 제막식을 개최하고 동판으로 제작된 명패를 달아 민간정원 등록을 알렸다."

'곶망태 정원'은 보성을 초입에 위치하고 있다. 정원과 함께 5천 평의 차밭과 정원주가 직접 설계한 버섯 모양의 카페, 펜션이 어우러져 관람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정원인 녹차미로정원은 지난 2004년부터 정원주가 손수 씨앗을 파종해 19년째 관리하고 있다. 현재는 수선화정원과 수국정원

까지 합쳐 총 3가지 주제 정원이 조성돼 있다.

안상현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개인 이 오랜 기간 가꾸 온 특색있는 정원이 전남도의 민간정원으로 등록되고 전국적으로 알려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해 참신한 민간정원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민간정원은 법인·단체나 개인이 조성해 운영하는 정원 중 심미적·문화적으로 그 가치가 뛰어난 곳을 도지사가 등록·관리하는 정원이다. 2017년 고충 '힐링파크'를 시작으로 2023년 9월 현재 총 25개의 민간정원이 등록됐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소통을 통한 남원시 광역 소각시설 입지 결정 고시



남원시 입지선정위원회가 신규 광역 소각시설 입지로 대산면 대곡리로 최종 결정고시했다.

지난 8월 31일 소각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6차 회의를 남원시청에서 개최하고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11명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전문 용역사가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결정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월 대산면 대곡

리를 최적 입지 후보지로 선정하고 인근 5km 내 기상, 대기질(다이옥신 포함), 위생 및 공중보건, 악취 등에 대한 환경질 현장조사 및 에어모드를 이용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시설로 인해 주변 환경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지방환경청과 협의 완료한 상태이다.

추후 실시단계 단계에서 상세계획에 따라 부지면적 및 편입 토지조서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우리시 쾌적한 환경보전과 주민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해 더 정밀하게 환경질 평가를 추진하고자 한다.

앞서 시에서는 2021년 12월부터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소각시설 입지 공모를 실시했으나, 신청지역이 없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 왔다.

민선8기 출범 이후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23개 읍면동 순회 주민설명회를 통해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입을 금지하는 정부정책에 따른 소각시설 확보의 시급성을 알리고, 타 시군 소각시설 운영에 대한 영상을 보여주는 등 소각시설에 대한 긍정적 시민 인식 제고에 발 벗고 나선 결과 총 7개소에서 입지 유치 희망을 신청했다.

7개 신청지역에 대해 입지선정위원회와 용역사의 심의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지난해 12월 입지 후보지 4개소를 선정했으며, 4개소 마을별 순회를 통해 혐오·기피 시설이었던 소각시설에 대한 님비현상을 극복하고, 성숙한 시민 의식과 함께 유치를 희망하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응원과 동의를 통한 객관적 평가를 거쳐 입지 최적지를 선정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신규 소각장 설치사업 가장 어려운 단계인 입지결정을 주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적극적 소통·협력을 통해 추진한 만큼 최선의 환경 기술과 최첨단 설비를 도입해 안전하고 깨끗한 시설 건설을 위해 적극 예산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1일 100톤 규모(남원시 생활폐기물 60톤, 순창군 10톤, 순환형 매립장비 30톤)의 광역 소각시설 건립을 오는 2026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남출/기자

'2023 나주축제, 영산강은 살아있다' 6일 언론인 설명회 연다

오후 3시 영강동 어울림센터에서 축제 추진위, 열흘 간 축제 프로그램 소개

10월 20일부터 29일까지 나주시 통합축제로 개최되는 '2023 나주축제, 영산강은 살아있다' 축제 추진위원회가 6일 축제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갖는다.

전라남도 나주시는 오는 6일 오후 3시 영강동 어울림센터에서 '2023 나주축제, 영산강은 살아있다' 언론인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이성각 축제추진위원장, 남정숙 총감독을 비롯해 시청 소관부서인 관광과 직원, 추진위 관계자들이 배석한다.

이성각 위원장은 축제 개요, 축제추진위원회 활동 경과보고 등을 남정숙 총감독은 축제 전야제·개막식을 비롯한 열흘 간 일정별 축제 프로그램을 소개할 예정이다.

2023 나주축제는 기존 마한 문화제, 천년나주목요음성문화축제, 도농상생페스티벌, 시민의날 기념식, 요리경연대회, 나주 실지미술 축제 등 10월 주요 축제·행사를 통합한 축제로 첫선을 보인다.

'아름다운 영산강에서 10일 동안'이라는 부제로 오는 10월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영산강둔치체육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축제는 나주를 키워낸 영산강을 배경으로 고대 마한(馬韓) 왕국에서부터 고려, 조선,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2천년 역사 속 나주가 가장 영화로웠던 주요 장면과 독창적인 문화를 각종 공연

과 퍼포먼스, 풍성한 볼거리·체험행사로 꾸며진다.

특히 축제 주 무대는 수변과 맞닿아 있는 영산강을 위 수상 무대로 설치된다.

개막 퍼포먼스, 뮤지컬, 전통 예술 공연 등이 역동적으로 펼쳐질 수상무대는 살아있는 영산강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축제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축제추진위에 따르면 축제 첫날인 20일은 전야제가, 21일은 개막식이 펼쳐진다.

개막식 본 행사는 21일 오후 7시부터 '영산강은 살아있다'를 주제로 열린다. 남 감독은 호남 물류의 중심지인 영산강(영산포구)에 상시 정착해있던 54척의 배를 복원한 역대급 수상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현재 뱃목 50척을 제작 중으로 황포돛배 4척을 포함해 총 54대의 배가 고려시대 물류를 나르던 '내해'(內海) 영산강과 영산포 나루터를 배경 삼아 장엄한 선상 퍼레이드, 폭죽쇼가 진행될 예정이다.

남정숙 총감독은 "강바람이 솔솔 부는 10월 영산강 수상 무대에서 보는 축제 공연의 아름다움을 평생 잊지 못할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축제를 통해 전라남도도 나주의 문화 콘텐츠가 확장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안/기자



함평군, 2023년 전라남도 청년4-H 한마음 야영교육 참여

유라시아 대장정 공동단장(김효정, 성장용 의원)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에 올인!

함평군 4-H연합회가 전라남도 4-H 연합회와 고흥군 4-H연합회가 주관하는 2023년 전남 청년4-H회 한마음 야영교육에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3일간 참여했다.

이번 야영 교육은 함평군 청년4-H 회원들을 비롯한 학생 4-H회원, 4-H 본부 및 내빈 약 45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년의 꿈을 심고 미래를 추수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교육 주요내용으로는 창의적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체험·화합·체육활동 및 우수과제 공모전이 진행됐으며 특히 학생 4-H회원 대상으로 지역농

산물을 활용한 체험부스 운영을 통해 농심함양을 이끌어냈다.

또한 4-H봉화식에서 4-H회원들은 지(智), 덕(德), 노(勞), 체(體)를 상징하는 불씨 채화 퍼포먼스를 통해 4-H 이념을 되새기고 미래 한국농업과 농촌발전의 선구자가 될 것을 다짐했다.

문정모 농업기술센터소장은 "4-H 연합회는 지금까지 농촌과 지역사회의 미래세대 육성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4-H회원들이 미래 농촌사회의 차세대 리더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완도해경, "실전 같은 도상훈련" 위기상황 대응 능력 높여

지휘관 중심 토의형 훈련을 통해 상황판단 및 의사결정 능력 강화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31일 "해역 특성을 반영한 6대 해양사고 중심 복합 재난 상황에 대하여 지휘관의 상황판단과 의사결정 능력을 강화하고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도상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지난 31일 오후 2시 무렵 3층 영상회의실에서 박 서장을 중심으로 편성된 지역구조본부 운영요원 등 26명이 참석하여 복합 재난 해양사고 도상훈련을 진행했다.

이번 훈련은 화물선 침수 후 침몰 상황을 가정해 통신 및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지역구조본부 가동 등 훈련 참가 세력은 상황 대응 훈련을 진행하고, 대응 종료 후 훈련 세력 간 역

할 및 임무 숙지 등 개선 및 보완사항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훈련은 6대 해양사고 중심으로 복합상황을 부여, 지역 특성화 훈련과 함께 상황 대응 방안을 활발히 논의해 원활한 사건·사고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었다.

박 서장은 "해상에서의 사건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하며, 상상하지 못한 부분까지 고민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대응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며 "도상훈련 중 도출된 문제점 등을 보완·반영해 실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양영울/기자



'5일간의 축제 함박웃음',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순천시 성황리 마쳐

5일간 6천5백여 명 순천 체류, 20억 원 소상공인 경제 파급효과

순천에서 열린 산업계의 전국체전인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가 지난 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품질혁신으로 대한민국 미래 100년 선도'를 주제로 개최된 이 행사는 5일간 6,500여 명의 전국 우수업체 관계자와 273개 기업들이 참여했다.

산업계의 전국체전인 만큼 각 기업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대회를 시작했다. 발표를 마무리하고는 후련한 모습으로 부대행사를 즐겼다. 참여자들은 순천시 홍보부스를 방문해 관광 코스를 문의하고, 도심 행사에 방문하거나, 캐리커처를 신청해 본인 의 캐리커처를 보며 즐거워하고 '루미

와 동이'와 함께 포토존에서 파이팅을 외치며 사진을 찍었다. 부대행사의 최고 인기는 다름 아닌 '루미와 동이' 캐릭터였다.

시가 전국 품질분임조경진대회 유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대회 개최로 기대할 수 있는 지역 경제적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더불어 행사를 통해 순천시의 브랜드 가치 상승과 지역경제 특수가 가능하다.

이번 행사를 통해 집계된 경제효과는 6,500여 명이 평균 1박 2식을 이용해 숙박비 및 식비에 5억 원, 정원박람회 및 도심투어 비용이 14억 원으로 집계돼 총 19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있었다. 또한 지역 기

념품을 구매해 1억원 가량의 지역 기념품이 전국으로 홍보되는 효과를 보였다.

한편, 이번 경진대회의 최종 수상자는 (주)현대미포조선과 (주)세양기업의 상생협력팀이며, 순천 현대제철은 사무간접 분야로 동상을 수상했다. 수상자들은 오는 11월에 열리는 국가품질경영대회(코엑스)에서 대통령 명의 메달과 장관 명의 증서를 수여받게 된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정원은 전략적인 개념으로 인문학 지식과 철학적 깊이 그 시대의 과학적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순천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로 해답을 제시

했는데 5일간 어떤 느낌을 받고 돌아가시는지 궁금하다"라며 "곧 정원에 역만송이 국화가 필 예정이니 가을에 다시 한번 방문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승준/기자



목포시, '장사 잘하는 비법, 신(神)의 장사전략특강 개최

장사에 관심있는 시민 대상... 장사전략,接客방법, 마케팅 노하우 등 교육 진행

목포시가 장사에 관심있는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장사 잘하는 비법'을 교육하는 '신(神)의 장사전략' 특강을 오는 6일과 21일 2회에 걸쳐 개최한다.

강의는 '장사의 신'으로 불리는 김유진 강사를 초청해 진행한다. 김유진 강사는 MBC PD 출신으로 국립중앙박물관 식음료 총괄 컨설턴트를 역임했고 다수의 저서 출판 및 TV 프로그램 출연 등을 하고 있는 유명강사이다.

김유진 강사는 전국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해 2,00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했고, 맞춤형 컨설팅이 실제 매출증대와 고용창출로 이어지며 '장사의 신'이라 불리고 있다.

이번 아카데미는 2회에 걸쳐 복합에 있는 목포수산물유통센터 2층 대강당에서 시민 약 5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참여하면 장사전략, 마케팅 노하우 등 매출향상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배울 수 있다.

목포시는 올해 10월 국내 최대 스포츠 축제인 전국체전과 11월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앞두고 있어, 방문객들에게 품격 높은 시의 이미지를, 소상공인들에게는 장사의 비법과 노하우를 전수해 소득창출로 이어지게 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6일은 오후 2시30분부터 4시30분까지, 21일은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진행되는데, 장사에 관심있는 시민들은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별도 등록없이 참석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홍보와 마케팅에 관심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로, 소상공인의 매출이 향상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전북도, "꿈꾸고 노력하면 누구나 외교관이 될 수 있다"

전북 국제협력진흥원 '찾아가는 국제교류 이해교실' 개최

"청소년들이 꿈을 갖고 생각하는 대로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외교관이 될 수 있다."

"국가 공무원인 외교관뿐만 아니라 K-pop의 선두주자 BTS나 한국의료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송중기 배우처럼 순창 북흥중학교 청소년들도 자신의 장점을 살려 글로벌 인재로 성공하기를 바란다"

지난 1일 순창북흥중학교(교장 이무산)에서 열린 '2023 찾아가는 국제교류 이해교실' 강사를 맡은 정지중 전 카타르 대사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시대를 맞아 각자의 개성을 살려 국제무대에서 외교관 및 민간 외교대사로 꿈을 펼쳐라"고 강연했다.

이번 행사는 전북지역 청소년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교류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전북국제협력진흥원(원장 김대식)이 도내 중·고등학교를 찾아가 국제화 시대를 주제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해 강연하는 '2023 찾아가는 국제교류 이해교실'의 일환이다.

이날 순창 북흥중학교 강연 올해 열 번째로 정기중 전 카타르 대사가 2013년 배우 송중기와 카타르 대사관 관저에서 찍은 사진을 소개하며 외교관의 역할과 민간외교 대사로 일할 수 있는 세계 무대를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학생들의 호응을 얻었다.

북흥중 오우진(14.1학년)군은 "이번 강연을 통해 다소 낯설은 외교관은 어떤 직업이고 무슨 일을 하는지, 또 글로벌 매너와 에티켓 등을 새롭게 알게됐다"며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찾아가는 국제교류 이해교실"은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 2017년부터 도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국제교류, 외교에 대한 이해, 세계 진출 등 도내 청소년들의 국제적 역량 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모집공고를 통해 접수를 진행



하고 글로벌 교육을 소외되는 학교를 우선 선정해 연간 15회 글로벌 역량 강화 주제로 부합하는 전문가분들을 강사로 초청해 국제화 시대 다양한 주제와 경험을 토대로 도내 청소년들의 차세대 글로벌 리더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5월 군산영광여고를 시작으로 10회째 진행했으며, 다음달에 정읍 배영중 등 5개 학교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2024 찾아가는 국제교류 이해교실' 신청은 내년 3월 중 전북국제협력진흥원 홈페이지와 전북 도내 중·고등학교에 공문을 발송해 신청을 받아 해당 학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남출/기자

진도군, '혹명나방 총력전 선포!' 예비비 3.6억원 투입

혹명나방, 이삭도열병 추가 방제 꼭 하세요!

진도군은 최근 중국으로부터 비래된 혹명나방 피해 확산으로 쌀 생산량 감소가 예상돼 병해충 긴급 방제를 위한 예비비 3.6억원을 투입한다고 4일 밝혔다.

군은 후기 병해충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전남 도내에서 가장 빠르게 긴급 예비비를 투입해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올해 예방차비를 통해 지난 7월 12일 혹명나방 첫 비래를 확인한 바, 긴장마와 고온 다습한 기상여건으로 혹명나방 발생비율이 32.7%로 예년에 비해 3~4배 증가했다.

혹명나방 다발생 시, 짧은 시간 내에 피해가 확산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출수기 지엽과 상위엽에 피해를 주

고 ▲출수불량 ▲등속지연 ▲천립중 감소 등 피해가 심한 곳은 수확량의 30%가 감소한다.

군은 올해 3회에 걸쳐 관내 2,694농가에 962백만원의 방제비를 지원했고, 이번 예비비는 5,500ha에 357백만원으로 진도군에 주소를 둔 수도작 경영체 등록된 농가에게 병해충 방제 약제 구입비를 지원한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올해는 병충해 발생이 많아 이삭도열병, 멸구류 등 후기 병해충 추가 발생이 우려되므로 방제 이후에도 논을 세심히 관찰해야 한다"며 "군에서도 수시 예찰을 통한 현장 지도 강화와 예비비 투입을 통한 신속한 방제로 쌀 안정 생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대한민국 대표 장수고장 구례군, 백수연 잔치 성료

전남 구례군은 9월 4일 광의면 다목적민회관에서 백수연 잔치를 열었다고 밝혔다.

백수를 맞이하신 광의면 하대 마을 라분동 어르신은 젊은 시절 학생을 가르치는 일을 하였고 지혜롭고 현명한 어르신으로서 주민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 라분동 어르신은 여러 언론 매체의 장수 비결 인터뷰 등에 출연하셨다.

이날 행사에는 가족과 마을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해 어르신의 무병장수를 기원하고 초대 가수 공연과 자녀들의 노래로 어르신의 생신을 축하했다.

김순호 군수는 "라분동 어르신의 건강 장수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함께 축하해 주신 주민들과 가족들에게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100세 시대에 걸맞은 명품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민국 대표 장수고장 구례군은 99세가 도래한 어르신들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백수연 전통문화 행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군에서 추진한 두 번째 백수연 행사이다.

김성현/기자



신안군 신혼부부 다문화가정 대상 부부교실 운영

신안군은 지난 9월 2일 '신혼부부 탐구생활' 프로그램을 가족센터 교류소통공간 회의실에서 다문화 가족 14쌍 부부 28명을 대상으로 3개월에 걸쳐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혼부부 탐구생활은 각각의 문화와 환경이 다른 나라에서 성장한 두 사람이 결혼생활을 이어 나가는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잘 적응하여 결혼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하고, 부부간 친화력을 높이는데 교육의 중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부부의 역할교육, 다문화 모범가정 부부 멘토와의 만남, 전통혼례 체험 또는 웨딩포토촬영, 부부 고백여행 등 다양한 부부관계 개선교육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총 4회기

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건강한 부부로 잘 살 수 있도록 남편과 부부의 역할 중요성을 교육하여 신안군의 다문화가정이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화순군 '화순백신산업특구 내 기관·기업 간담회' 개최

'화순군과 특구 내 기관·기업과 상생 발전 도모'

화순군은 9월 1일 '화순백신산업특구 내 기관·기업 간담회'를 생물 의약연구원내에서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화순 생명 사회포럼 주관으로 화순군과 화순백신산업특구 내 입주 기관·기업들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와 상호협력하고 동반 성장하는 기회를 얻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구복규 화순군수, 범희승 포럼 사무총장(화순 군립요양병원장), 임지락 포럼 정책분과위원장(전라남도의회 의원), 조민 미생물 실증지원센터장, 류강 생물 의약연구원센터장을 비롯한 기관·기업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오늘 간담회가 화순 백신·바이오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참석자와 참석자가

속한 기관, 사업체의 미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국내 유일 화순백신 산업특구에서 많은 기업이 기반을 잡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범희승 사무총장과 임지락 정책분과위원장이 포럼을 대표하여 간담회에 참석한 기관·기업 관계자들에게 환영사와 더불어 감사의 인사를 전했으며, "산·학·연·병·관 협의체인 만큼 소통의 창구로서 역할을 다하겠다.", "화순이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바이오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전남테크노파크 김정년 연구원이 화순백신산업특구 내 기업 특허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홍보했으며, 이

화순군과 화순백신산업특구 내 기관·기업 간 자유로운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화순군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검토하여 화순의 미래 전략을 수립하는데 반영할 계획이다.

화순백신산업특구는 2010년 11월 국내 유일의 백신산업 특구로 지정됐으며, 작년 11월 국가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개소로 백신·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단계부터 전임상, 임상, 인증, 제품화 단계까지 지원이 가능한 전주기 인프라 구축을 완성했으며, 15개 지원기관과 33개 바이오기업 등이 입주해 있다.

한편 화순군은 지난 7월 세계보건기구(WHO) 글로벌 바이오 화순 캠퍼스로 선정되어 인력양성의 메카로 발달하고 있으며, 더 많은 국내·외 바이오 기업을 유치하고 글로벌 바이오산업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자 현재 조성 중인 생물·의약 제2산업단지과 더불어 제3

산업단지 조성을 조기에 추진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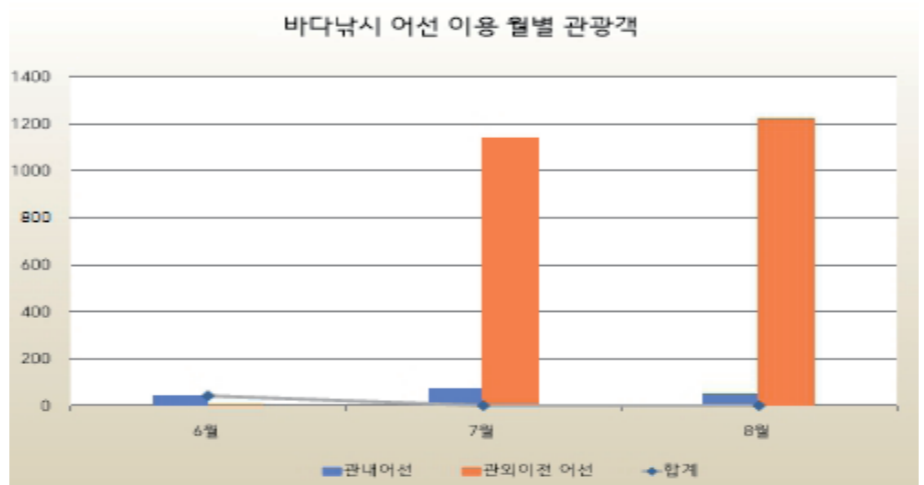
또한 국가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기능 확대 사업, 미생물 기반 백신 전문 인력 양성사업, 생명·건강(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 등 지역 바이오 인력양성 및 바이오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을 조성 중이며, 전남·광주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경호/기자



강진군 바다낚시 어선 지역경제 효자노릇 '톡톡'

약 4억8천만원의 경제효과 이끌어내



강진군 마량항의 바다낚시 어선의 지난 7~8월 누적 이용객이 2,400명을 넘어선 가운데 바다낚시 어선 유치가 지역경제에 제대로 된 효과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월 강진군에 따르면 마량항 바다낚시 어선 이용객은 바다낚시 어선 유치 이전 6월 한 달 40명에서 유치 이후 7월 1,206명, 8월 1,271명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바다낚시 어선 이용객의 꾸준한 증가는 고스란히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용객들의 방문으로 인해 지역 내 식당, 카페, 편의점 등 다양한 업종에서 소비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군에서 파악한 경제 유발

효과만도 누적액 약 4억 8,000만원으로 마량 지역상권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마량항에 있는 음식점 사장 A씨는 "바다낚시 어선 유치 이후 수산업에서 식당으로 업종을 변경해 식당뿐만 아니라 도시락 판매까지 더해져 매출이 증가했다"며 웃을 지었다.

또 다른 음식점 대표 B씨도 "낚시객들이 자주 방문해 지역상권이 활성화돼 마량이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며 "앞으로 낚시객들이 점점 더 늘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바다낚시 어선 유치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입 등 긍정적인 요소가 많은 만큼 앞으로도 바다낚시 어선 유치 대수를 지속적으로 늘리는 등 공격적인 정책을 추진, 지역 경제를 더욱 부흥시키겠다"고 밝혔다.

추윤호/기자

경북도, 2023년 도시재생사업 '우리동네살리기' 공모 선정

주거복지 및 삶의 질 개선, 일자리 창출로 지역민 소득 증대

경북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도시재생사업(우리동네살리기) 신규 공모 사업'에 영덕군이 선정되어 마중물 사업비 83.3억 원(국비 50, 지방비 33.3)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사업은 인구 및 사업체 수가 감소해 산업의 이탈이 발생하고 노후주택의 증가로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에 지역자원을 활용해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도시기능을 활성화시켜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특히, 도시재생사업 중 우리동네살리기는 노후 주거지 정비, 주민 공동이용 시설 확충 등 소규모 주거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유형으로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녹아낼 수 있는 소도시에 적합한 사업이다.

전국 8개 시도 10개 지구가 최종

선정됐으며 경북은 영덕군이 선정돼 국비 50억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에 선정된 영덕군 도시재생사업(우리동네살리기)은 2021년 이미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선정된 영덕시장 인근 지역에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내용은 집수리 50호 지원, 공용주차장 65면 설치, 다목적 순환형주택 8호 조성, 주민 커뮤니티 공간 설치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및 영덕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민들의 소득 증대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22개 시군 51개소에 8,952억원(국비 5,388)의 예산을 투입해 도시재생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5개 지구 사업을 준공했고, 올 연말까지 8개



사업지구를 준공할 계획이다. 박동엽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점점 쇠퇴해져 가는 원도심에 희망을 불어넣고 도시기능을 재생해 어려운 지역 경제를 살리고 도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등 활력적인 도시 경북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동행축제, 대구 상권의 중심 동성로에서 성대하게 개막

대한민국 동행축제 특별행사, 9월 4일 대구 동성로에서 개최

국내 최대 규모의 전국적 소비촉진 행사인 '2023년 황금달 동행축제' 개막행사가 9월 4일, 대구 상권의 중심 동성로에서 개최됐다.

이번 특별행사는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활력 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중소벤처기업부와 대구광역시 공동으로 주관하는 것으로 경제 활력의 기운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데 의미가 있다.

먼저, 9월 4일 정오부터 관람할 수 있는 부대행사는 동성로 야외무대에서 국채보상로에 이르는 거리에 총 20개의 부스와 체험공간으로 운영되고, ▲상생부스(스타벅스 옥천 단호박라떼 등 상생음료 시음회) ▲동행스트리트(중소·소상공인 90개사, 대구 신진 디자이너 3개사 판촉) ▲대구플리마켓(전통시장 기운별'떡' 배부, 소상공인 홍보 및 시민참여 이벤트 등) ▲도그파킹(한국애견협회 캠페인, 기념품) ▲체험존(전통놀이 체험, SNS 챌린지) 등으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저녁 7시 30분에 열린 메인행사에는 ▲소상공인 응원공연(계명대 비사웅원단 치어리딩) ▲힘오르기 퍼포먼스(동행축제 대박 터트리기) ▲대구 소상공인을 위한 동행패션쇼 등이 동행축제

홍보모델 '라비언스'의 축하공연과 함께 성대하게 열려 시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대구시에서는 동행축제와 연계해 대구사랑상품권인 '대구로페이'를 9월 한 달간 1인당 구매한도를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할인율은 5%에서 7% 할인으로 확대하고, 보유한도를 150만 원까지(평시 60만 원) 늘림으로써, 지역 소비 확대와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한편, 9월 동행축제를 맞아 온·오프라인 판촉전 및 지역 행사와 연계한 할인쿠폰 제공, 가격 할인, 사은품 증정 등 중소·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한 다양한 소비촉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고, 동행축제 기간 운영되는 기획전, 상품할인 이벤트와 관련된 내용은 동행축제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장은 "국내 최대 소비촉진 행사인 동행축제의 특별행사를 대구 상권의 중심인 동성로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동성로 상권이 살아나고, 골목상권이 부활해 전국적으로 소비활력의 기운이 확산되도록 대구시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부산시, 'IEEE RO-MAN 2023(2023년 로봇-인간 상호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국제학술대회)' 성료

8.28.~8.31. 4일간 38개국 700여 명이 참석해 359편의 논문 발표하며 성대히 막을 내리

부산시는 지난 8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부산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열린 IEEE RO-MAN 2023(2023년 로봇-인간 상호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국제학술대회)가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국제전기전자학회 로봇 자동화위원회(IEEE RAS), 일본로봇학회(RSJ), 한국로봇학회(KROS) 주관, 부산시 후원으로 열렸다.

'IEEE RO-MAN 2023'은 32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제학술대회로, 2007년 제주, 2013년 경주에 이어 대한민국에서 3번째로 개최됐다. 특히, 올해 행사는 역대 통틀어 최다 논문이 발표됐고, 최다 참석자 수를 기록해 성대히 막을 내렸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인간과 로봇 상호작용(H-R-I)을 위한 새로운 가교 설계(Design a New Bridge for H-R-I)'였다.

인간과 로봇 상호작용(Human-Robot Interaction, HRI)은 컴퓨터과학, 인류학, 심리학 등을 기반으로 한 최신 첨단 로봇 융합 기술이 사람과 로봇이 함께 살아가는 '1인 1로봇 시대'의 핵심기술이다.

대회는 온·오프라인 혼합방식으로 진



행했으며, 38개국에서 700여 명이 참석해 359편의 논문을 발표했고, 3명의 기조강연자 초청과 18개의 워크숍·튜토리얼, 포스터 세션 운영, 로봇디자인 경진대회 등 다채로운 학술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환영 리셉션, 만찬, 페어웰 파티 등의 소셜 이벤트, 그리고 부산 나이트투어, 랩투어 등의 투어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특히 전시 부스도 운영돼 국내외 산업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다.

로봇 관련 산업체들의 기술 수준과

제품이 세계무대에 소개돼 국내업체들의 해외 시장 진출 발판을 마련하고 신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회의 조직위원장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지능로봇연구단의 최종석 단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인간과 로봇 상호작용(HRI) 분야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로봇 선도 국가로서의 국제적 입지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으며,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국내 학술 수준의 전반적 향상과 대

한민국의 대외적 위상을 확보했다"라고 말했다.

이경덕 부산시 미래산업국장은 "우리는 세계적인 학술대회인 IEEE RO-MAN 2023의 성공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로봇 선도도시이자 2030세계박람회 개최 후보도시 부산의 역량을 국내외 참가자들에게 입증했다"라며, "이번 대회가 부산의 로봇 분야 기업에도 한층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희태/기자

청송군, 이색숙박시설 공모 선정! 사업비 100억 확보!

"라비에벨(La vie est belle) 청송"



청송군은 경상북도가 주관하는 '경북형 이색숙박시설 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총 사업비 100억(도비50%, 군비50%)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공모사업은 글로벌 K-관광선도와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 시대를 여

는 경상북도 2030 관광 비전 목표로 추진하는 핵심사업으로, 숙박시설 자체만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이 되도록 유휴시설을 활용해 경북형 이색숙박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지는 주왕산면 하의리 일

원 청송양원(구. 주왕산초등학교)으로 2009.12월 청송군이 매입하여 현재 예비군면대, 산물진화대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사업규모는 총사업비 100억 원으로 건축설계를 공모하여 2026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가옥형호텔 15실(1,840㎡), 청송사와 글램핑장 15개소(630㎡), 바비큐장 15개소(240㎡), 트리하우스 4개소(100㎡), 라비에벨 카페&식당 256㎡, 야외물놀이장, 주차장 등 주요시설로 조성하여 호텔의 편안함과 캠핑의 즐거움, 그리고 산소카페 청송군의 아름다운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전국에서 유일한 최고의 이색숙박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관광지인 주왕산, 주산지, 얼음굴, 유교문화전시체험관 등 지역관광자원 연계와 관광객을 위한 체험관광 프로그램개발은 물론 지역 주민과의 협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계기로 지역의 이색숙박시설(청송사과와 산소카페 모티브) 자체가 청송여행의 동기가 될 수 있도록 매력도 높은 숙박시설을 건립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관광 활성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영양고추는 언제나 좋다! K매운맛으로 물들이다"

9월 18일부터 서울광장에서 2023 영양고추 H.O.T 페스티벌 열려

'2023 영양고추 H.O.T 페스티벌'이 서울광장에서 '영양고추는 언제나 좋다!'라는 슬로건으로 9월 18일부터 3일간 15번째 도농상생 농특산물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2007년 지자체에서는 최초로 고추라는 단일테마로 서울광장에서 출발한 '영양고추 H.O.T Festival'행사는 '가장 작은 육지섬'에서 '대한민국 최대중심도시'로 소비자를 직접 찾아가는 통합마케팅 행사로써, 이제는 명실상부한 서울시민들이 "가장 기다리는"축제이다.

금년도 행사는 본격적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영양고추의 옹고 내성적인 맛을 제대로 전하고자 알차고 내실 있는 짜임새로 도시민의 소비욕구를 충족시킬 예정이며, 농특산물 통합마케팅을 중점으로 불필요한 무대행사를 최소화하고 다양한 전시체험공간 운영 등 선택과 집중의 행사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영양군에서 따와 정성으로 키워낸 최고 품질의 영양고추와 고춧가루, 다양한 농특산물을 도시 소비자에게 선보이고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된 60여 농가와 영양고추유통공사, 영양농협, 남영양농협 등 우수 고춧가루 가공업체도 함께 참여한다.

행사 첫날인 18일 'KBS 6시 내고향' 영양군 특집생방송을 시작으로 생생한 현장감을 제공하며 농특산물 전시·판매,



홍보전시관, 시민참여 체험행사, 영양고추 테마동산 등 다채로운 테마를 제공할 예정이다. 불필요한 개막식 대신 작년부터 실시한 개회나눔행사는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금년에도 15주년의 의미를 담아 도농이 적극 공감하는 개회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전시·홍보 부스에서는 여성군자 장계향선생이 쓴 한글로 기록된 최초의 음식 조리서인 '음식디미방'과 '문화관광' 홍보전시관을 마련하고, 서울광장 힐링플레이스로 자리잡은 영양고추테마동산에서는 지역특색을 한껏 살린 가을농촌분위기로 도시민에게 휴게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우수 농특산물 홍보 사절단인 영양고추아가씨들이 현장을 누비며 판매활동에 앞장서고 시민들을 위한 홍보활동과 화려한 퍼포먼스는 축제장을 찾은 도시민들에게 행사의 품격을 드높일

예정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최근 발생하는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지친 마음에도 변함없이 15년 동안 기다려 주신 수도권 소비자들을 위하여 올해 행사도 정성으로 준비했으며, 영양고추의 옹고 정직한 맛을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하여 '영양고추 H.O.T 페스티벌'행사의 성공적 추진 및 '영양고추의 명품화 및 세계화'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TK신공항, 항공물류 허브를 의성군에 집중하라!"

TK신공항 건설의 기본원칙인 '공동합의문'에 의거 사업추진 강조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9월 4일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의성군 이외의 특정 도시에서 항공물류단지 건설을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TK신공항 공동합의문의 정신대로 모든 신공항의 물류시설은 의성군 지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공항건설단 및 후적지개발단의 TK신공항 건설 추진상황 보고 후, "TK신공항의 공항시설인 화물터미널 이외의 모든 항공물류를 의성군 지역의 물류단지에 집중하는 것이 공동합의문의 기본원칙이므로, 의성 이외의 특정 도시에 물류단지나 연결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금융지원, 규제 완화를 통해 최고의 경쟁력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연결도로도 개설해 의성군을 항공물류 허브 도시로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공항을 배후로 한 첨단산업은 군위, 의성, 안동 남부지역에 집중 육성토록 하는 계획을 경상북도와 협의해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군위군에 대구시 공무원 연구시설 및 레저시설, 리조트 등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은 대구시의 예산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공동합의문에 명시된 공무원 연구시설을 짓기 위해 민자유치로 진행되는 사업이다"며, "향후 사업성 분석 등 최적안을 도출해 사업이 원활

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기획조정실의 '국정감사 대비 추진상황' 관련 보고 후,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출범한 이래, 국정감사는 각 지자체에 자료제출 요구 등으로 과도한 업무부담이 되고 있다"며, "지방자치법상 국정감사의 대상은 국가위임사무, 국가예산지원사무에 국한된다. 지방사무는 국정감사 대상이 아니므로, 불필요한 자료제출에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감염병 등 급 하향 조정에 따른 방역대책' 관련 보고 후,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에 따라 일반의료체제로 전환 하되 일부 고위험군 보호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며, "격리에 따른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종료, 의리기관 유료 진단검사 전환 등 달라지는 방역체계를 시민들께 소상히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이번 추석 명절은 긴 연휴로 이어져 시민편의, 민생안정, 온기나눔 등 각 부문별로 꼼꼼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며, "추석 연휴 특별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해 시민들께서 안전하고 평안한 명절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윤근수/기자



경북관광통합플랫폼 '투어054' GRAND OPEN!!

지역 주도 플랫폼 비즈니스 구현으로 지역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기여

최근 온라인(모바일) 중심의 관광 상품 거래 비중 증가로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민간 OTA(Online Travel Agency) 플랫폼에 대한 유통판매가 집중되고 있어 수수료 과다, 품질 저하, 수익구조 악화 등 지역관광산업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도에서는 민간 OTA 플랫폼을 통한 판매·유통 의존도를 줄이고 지역 주도의 플랫폼 비즈니스 구현을 위해 경북관광통합플랫폼 '투어054'를 구축하고 5일부터 정식 오픈한다.

경북관광통합플랫폼 투어054는 도내 관광상품의 온라인 판매 촉진을 위해 상품 등록 및 판매, 관리, 홍보 마케팅 등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판매자는 플랫폼을 이용한 상품 등록만으로도 11번가, 쿠팡, 옥션, 여기어때 등 외부 판매 채널과 자동으로 연동되어 상품 판매가 가능하며, 판매 수수료 할인 혜택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또 등록된 판매 채널의 구매 현황 및 사용내역, 취소·환불 등 실시간 데이터 관리와 정산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어 효율적인 상품 판매 관리에 용이하다.

아울러, 경북관광 상품의 효율적인 홍보 마케팅을 위한 플랫폼 전용 판매 채널인 투어054몰도 연계 운영한다.

경북도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인 경북e누리, 경북투어패스를 비롯해 도내 22개 시군의 모든 관광상품을 만나 볼 수 있으며, 다양한 할인 패키지 상품을 제공해 누구나 쉽고 저렴하게 경북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이 밖에도 할인쿠폰, 적립금, 온라인 경품 등 특별 프로모션도 진행해 구매자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이용 활성화 및 상품 판매 촉진을 유도할 예

정이다.

한편, 경북관광통합플랫폼 오픈 기념으로 투어054를 회원 가입 이벤트를 9월 한 달간 실시할 예정으로, 이벤트 기간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에게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제공한다.

경북도는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도 및 시군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광상품과 연계해 사업을 진행하며, 내년에는 민간 영역까지 사업 규모를 확대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상철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지역 관광사업체의 수수료 부담 등 애로사항 해소뿐만 아니라 도내 관광상품의 온라인 유통·판매 판로 확장을 통한 지역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제63회 안동시민체육대축전 개최 '함께하는 시민체전! 하나되는 안동시민!'

市승격 60주년 새로운 도약 염원, 시민 대화합의 장 열려



'제63회 안동시민체육대축전'이 "함께하는 시민체전! 하나되는 안동시민!"이라는 슬로건 아래 안동시민, 향우 회원 등 15,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9월 9일(토)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시민운동장에서 개최된다.

이날 성화는 웅부공원에서 채화해 시내 전역을 돌아 시민운동장으로 봉송된다. 봉송된 채화는 성화 최종 봉송주자인 김동량 대한노인지회장, 최다원(용삼초 6) 선수에게 인계돼 시민운동장 점화대에 오른다.

개회식에 앞서 풍물 공연으로 체전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10시 선수단 입장으로 안동시민체육대축전의 시작을 알린다.

본 경기는 400m 계주와 줄다리기, 힘자랑, 훌라후프 돌리기, 장기자랑 등 읍면동 10개 종목, 직장대항 2개 종목이 진행된다. 각종 경기가 마무리 되면 읍면동 장기자랑이 이어지고, 초

윤근수/기자

영주시, '제44회 영주시민체육대회'... 8일 시민 화합 한마당 열려

영주시는 8일 영주시민운동장에서 시민 화합 한마당 '제44회 영주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오전 9시 정각 개식통보에 이어 선수단 입장 성화점화를 시작으로 화려한 막을 올리게 된다. 19개 읍면동, 29개 학교, 8개 직장·단체 등에서 출전한 2500여 명의 선수·임원들이 그동안 같고 닮은 기량과 단결된 힘을 발휘한다.

체전에서는 육상, 마라톤, 줄다리기, 씨름, 풋살, 줄넘기, 투호, 게이트볼, 피구, 한궁, 배구, 족구, 테니스, 훌라후프 이어달리기, 중량들고 달리기, 기관단총장 이어달리기, 장기, 바둑으로

18개 종목이 진행된다.

올해는 시민안전 및 원활한 대회운영을 위해 시민운동장 내에 전면 차량통제를 할 예정으로 모든 참석자는 시민운동장 앞 서천 둔치 임시주차장 등에 주차하고 도보로 이동해야 한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제44회 영주시민체육대회를 통해 남녀노소 모두 함께 생활체육을 즐기고 서로 친목과 우정을 나누는 화합과 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생활체육을 즐기는 '스포츠클럽'을 만들어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주시 청렴 ON AIR, 아침방송으로 청렴문화 확산 노력

청렴에 관한 젊은 세대 직원들의 생각과 경험 등 전해

경주시는 청렴문화 확산과 청렴 공감대 형성을 위해 '청렴 ON AIR 아침방송'을 진행한다. 4일 밝혔다.

'청렴 ON AIR 아침방송'은 매주 화·금 오전 업무 전 3~5분 간 청내 방송을 통해 청렴에 관한 직원들의 경험담과 의견을 라디오 사연 형식으로 전파하며 청렴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캠페인이다.

매달 확대간부회의 때마다 진행되는 청렴메시지 전파가 고위직들의 강력한 청렴의지의 공유라면, '청렴 On air 아침방송'은 젊은 공무원들이 주

축이 돼 방송을 직접 제작하고 공유한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경주시 이를 통해 아래에서부터 시작되는 이른바 '바텀업(Bottom Up)' 방식의 청렴문화 확산실천으로 지속될 것 기대하고 있다.

앞서 경주시는 청렴도 최고등급 유지를 위해 간부공무원 청렴교육, 시민감사관 간담회, 반부패 청렴서한문 발송과 전 직원 친절·민원응대 역량 강화 교육, 부서별 청렴 실천 홍보물 구 공모, 건축직 청렴도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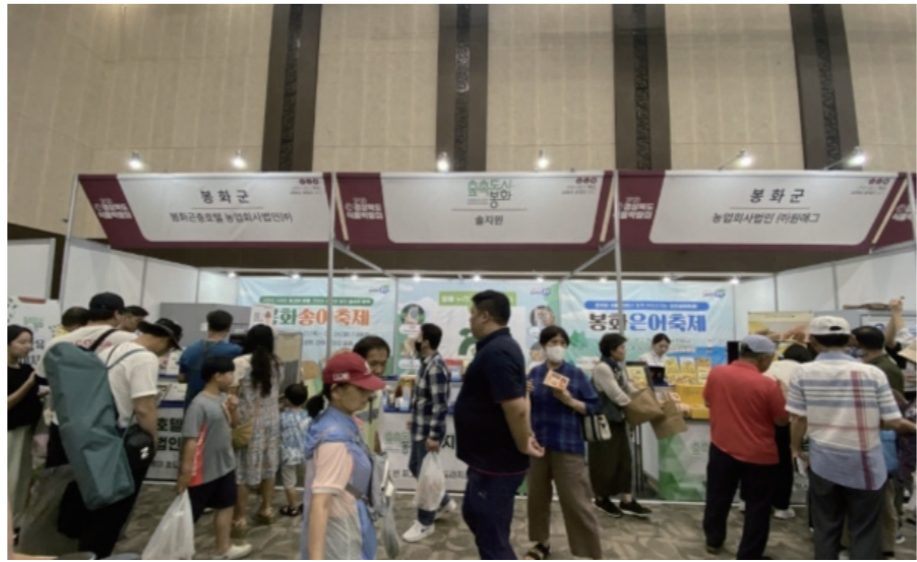
주낙영 경주시장은 "청렴은 함께 실천할수록 더욱 빛이 난다"며, "청렴 아침 방송을 통해 청렴한 생각과 마음을 되돌아보고 직원들 스스로 청렴실천 의지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렴 ON AIR 아침방송'은 경북음악창작소 스튜디오에서 이뤄졌으며, 오는 10월 중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경주시는 중방 이후 추후 만족도 조사를 재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윤태용/기자



봉화군, 2023 경상북도 식품박람회 참가해 다양한 먹거리 선보여



봉화군은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경주화백컨벤션센터(하이코)에서 '경북식품의 혁신, 세계의 경계를 넘다!'를 주제로 경상북도가 주최·주관한 '2023 경상북도 식품박람회'에 참가했다.

142개 부스(170여 개 업체 참여)로 이뤄진 '2023 경상북도 식품박람회'는 지난 1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개막식을 시작으로 푸드테크, 증가음식, 김밥관 등 전시행사와 수출상담회, 요리경연 등 부대행사를 통해 많은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봉화군에서는 봉화군농호호텔 농업회사법인(주), 솔지원, (주)원애고, 삼육네이처세븐 등 4개의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참가했으며, 꽃병이효도환(봉화군충

윤근수/기자



경북도, 잉어류 등 어린고기 100만 마리 방류

도내 주요 하천·저수지 등 생태계 유지·보전 및 어자원 조성 기여

경상북도 수산자원연구원 토속어류 산업화센터는 어자원 생태계 유지·보전 및 어자원 조성을 위해 지난 8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도내 21개 시군에 잉어류 등 어린고기 100만 마리를 저수지 및 낙동강 수계 지류 하천 등에 방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방류한 잉어류 60만 마리와 미꾸리 40만 마리는 토속어류산업화센터에서 관리해 온 건강한 어미로부터 올 5월부터 인공수정 및 부화 과정을 통해 약 4개월간 길러 총 160만마리(잉어류 100, 미꾸리 60만)의 우량 종자를 생산했다.

우선적으로 건강한 어린고기 100만 마리를 선별해 어자원 생태계 유지·보전 및 어자원 조성을 위해 도내 낙동강 지류하천 및 저수지 등 21개 시군 23개소에 방류했다.

‘잉어·붕어’는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대표적인 토속어류로 고단백 저지방 육질로 이루어져 있어 자양식품 또는 찜, 매운탕 등 다양한 요리의 식재료로서 활용성이 높다.

특히, 붕어는 민물낙시꾼들이 가장 선



호하는 어종이며, 센터에서는 2015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836만 마리의 잉어류 어린고기를 지속적으로 방류해 왔다.

또 미꾸라지의 사촌 격인 ‘미꾸리’는 가식부가 많고 뼈가 연하여 추어탕 및 튀김용 등으로 소비자들이 매우 선호하는 내수면 어종이다.

센터에서는 육상에서 대량 생산하는 기술에 성공해 미꾸리 양식 기술지 발간, 전문인력 양성 교육으로 농어업인의 양식 방법 어려움을 해결하고 소득향상

과 내수면 산업의 활성화에도 노력하고 있다.

올해 10월 이후에는 잉어류 40만 마리와 동자개 50만 마리 등 어린고기 90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으로 지속적인 어린고기 방류로 도내 내수면의 어자원 생태계 유지·보전 및 어자원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북도에서는 2023년 수산종자 방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산종자 방류효과조사(사전·사후영향조사 등)를 수산자원공단에 위탁해 수행하고

있으며, 토속어류산업화센터에서는 자체적으로 방류 후 하천 생태계조사를 실시해 자연조성 현황 모니터링을 병행하고 있다.

이경곤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도내 낙동강 유역 지류하천 생태 모니터링을 통해 수질 환경 및 어자원 분포 현황을 파악하여 생물자원 생태계 유지·보전 및 어자원 조성에 지속가능한 내수면 어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달성군, 농작업 안전실천 생활개선달성군연합회 한마음 교육 실시

달성군은 지난 4일 달성군청 대강당에서 생활개선회원 및 여성단체 등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생활개선회 한마음 실천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생활개선회원이 한마음으로 여성농업인으로서의 가치를 되새기고 정체성을 재정립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고, 농업·전통문화·농촌의 다양성 이해를 통해 도농상생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실시했다.

교육 진행은 MC더스 대표 방우정 강사를 초빙해 화합의 리더십이란 주제로 특강을 듣고, 음·면회 소개 퍼포먼스, 농업인 안전리더 위촉식, 농작업 안전캠페인 및 농작업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전시 관람행사로서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수제 과일촉초,

천연염색, 일상에서 만나는 원예활동이란 주제로 회원들이 손수 만든 과제를 전시했다.

천연염색, 일상에서 만나는 원예활동이란 주제로 회원들이 손수 만든 과제를 전시했다. 천윤옥 생활개선달성군연합회장은 “생활개선달성군연합회가 농촌지역의 리더, 농업성장의 동력으로 국민에게 농업과 농촌의 소중함과 우리 농산물에 대한 우수성을 알리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생활개선회원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여성농업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단합된 마음과 열정으로 지역 농업발전은 물론, 미래 희망 농촌 창조에 주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영덕군, 회계 실무교육으로 재정 효율성·건전성 제고

영덕군은 회계업무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1일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회계업무 담당자 및 신규 직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영덕군 회계 실무교육을 시행했다.

이날 강의는 경상북도인재개발원에서 다년간 회계교육을 한 김동희 영덕부군수가 예산회계총론을 강의해 직원들의 이해를 도왔으며, 네이버 예산회계실무 카페 운영자인 조양제 연구원장이 지방회계제도,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절차, 계약업무 등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강의를 펼쳐 직원들의 호응을 얻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회계 담당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최우선 조건”이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투명하고 전문적인 회계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문화/기자



9월 울진군 굿모닝 목요일특강 개최

울진군 대전환 프로젝트(어업, 산림) 비전 공유

울진군은 9월부터 굿모닝 목요일특강을 다시 시작한다.

8월에는 울진군 전직직원들을 대상으로 군정 현안 사업 및 변화와 혁신 행정을 주제로 한 군수 특강으로 진행됐고, 9월부터 다시 다양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초빙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한 강의로 진행한다.

9월 굿모닝 목요일특강은 총 2회

의 특강이 준비되어 있다. 9월 7일 특강은 송재필 ㈜미스터아빠 CSO(최고전략책임자)가 ‘지역 로컬 수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한 물류 및 유통사례’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9월 14일 특강은 배준규 산림청 국립수목원 정원식 물자원과정의 ‘정원사업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진행된다.

송병복 울진군수는 “이번 9월 목요일특강 주제는 우리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울진군 3대 대전환 프로젝트 중 어업대전환, 산림대전환 프로젝트와 관련된 내용이다”며 “이번 특강으로 수산물 당일 배송, 유통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물류 대학신의 비전과 향후 왕피천 국가 정원 지정을 위해 정원산업 동향과 전망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울진군 굿모닝 목요일특강은 울진군 공식 유튜브 채널(경북울진군)을 통하여 다시보기가 가능하다.

장문화/기자

예천군, 2024년도 군정 시책보고회 개최 "변화와 혁신으로 미래를 선도"

김학동 군수 “군민 삶이 더 행복해지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

예천군은 5일 오전 9시 군청 중회의실에서 김학동 군수 주재로 ‘경북의 중심! 미래를 선도하는 예천’ 구현을 위한 2024년도 군정 시책보고회를 가졌다.

군은 정부 및 경북도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미래 신성장 동력사업을 비롯한 지역현안 해결과 군민 삶의 질 향상 등에 중점을 두고 신규 시책 119건, 역점사업 70건, 국·도비 공모 20건 총 209건을 발표했다.

이번 보고회는 기획예산실과 행정지원실을 시작으로 7일까지 3일간 개최되며 생활인구 유입 확대,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사업, 탄소중립·기후변화대응·지역균형발전 등 정부 중점사업과 관련한 부서별 신규, 역점, 공모사업 등을 제시하고 구체적 실현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학동 군수는 “본격적인 민선 8기 출범 2년 차를 맞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책 발굴에 전 공직자가 역량을 집중하고 군민의 삶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에 발굴된 시책은 소요예산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을 고려해 타당성이 높은 시책은 다시 검토한 후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2024년 예산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윤근수/기자



구미 정신문화 계승 창작민요극 '구국 의병장 허위'개최

창작민요극 '구국 의병장 허위'가 1일 오후 2시와 7시 30분 2차례에 걸쳐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됐다.

구미시와 경상북도가 후원하고 구미 의병 아리랑 보존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공연은 구미 역사 인물인 왕산 허위 선생에 대한 이동순 문학평론가의 강연과 창작민요극 '구국 의병장 허위' 공연으로 진행됐다. 왕산 허위 선생은 구미 출신의 구

한말 대표적인 의병장으로 전국 의병연합체인 13도 창의군 군사장을 지냈고, 서울탈환 작전을 실행하며 일생을 독립운동에 투신하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했다.

공연은 허위 선생의 업적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며, 구미의병아리랑, 방아타령, 맷돌질 소리 등 토속민요와 구국운동에 나서는 허위 대장과 허훈, 허겸, 허위 일가족의 빛나는 활약을 통해 당시 민초들의 절절한

의침을 전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세월이 흘러 지난날의 실수와 치욕이 잊혀 가는 이때,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돌아보고 그 애국심을 본받아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밑바탕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동현/기자



'2023 부산국제건축제, 오늘(5일)부터 시민참여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9.20.~9.24. 5일간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2023 부산국제건축제 열려

부산시는 오는 9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리는 '2023 부산국제건축제'의 시민참여 프로그램 참가자를 오늘(5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제는 'Busan Style - Busan Lifestyle and Architecture'를 주제로 열리며, 건축의 축적으로 이뤄진 도시에서의 아름다운 일상을 위한 건축가들의 역할과 생각을 담았다.

다양한 전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부산시민과 국내외 전문가가 어우러지고, 도시와 건축에 대한 이해를 넓힐 예정이다.

올해 부산국제건축제의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는 ▲안드레아스 클레이나우 함부르크 유한책임회사 사장 초청 강연 ▲세계적인 건축가 위니마스 MVRDV 대표 특별강연회 ▲어린이도시건축교실 ▲시민건축투어 등이 마련됐다. 일부 참여프로그램은 온라인을 통해 사전 예약해야 하며, 그 외에는 예약 없이 바로 참여할 수 있다.

9월 20일 오전 11시에는 독일 하펜 시티 함부르크 유한책임회사 사장 안드레아스 클레이나우의 초청 강연이 예정돼 있다. 참가 신청은 온라인 사전 예약(100명)과 현장 접수(100명)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세계적인 네덜란드 건축가그룹 MVRDV 초대작품전과 함께 오는 9월 20일 오후 2시 '위니마스(Winy Maas, MVRDV대표) 특강'이 열린다. 세계적인 건축가의 혁신적인 견해를 들을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온라인 사전 예약(100명)과 현장 접수(100명)로 진행될 예정이다.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도시건축교실'은 참가자가 서로 다른 건축물을 만들어 하나로 모으면서 도시의 구성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다. 회당 30명씩 8회 진행되며, 온라인 사전 신청(240명)으로 참여할 수 있다.

9월 23일 진행되는 '시민건축투어'는 올해 부산다운건축상 수상 건축물을 답사하며, 건축물에 대해 수상작별 설계자의 해설을 들을 수 있다. 참가비는 식대, 차량 포함 금액인 1만 5천 원이

며, 온라인으로 참가자 35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생활양식(라이프스타일)'을 담은 건축'을 주제로 한 강연도 마련된다. 식음료(F&B), 숙박(스테이) 등 건축의 확장적 영역의 동향(트렌드)과 부산에 적용할 수 있는 성공 요소에 대한 담론은 모은다. 강의는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민참여 프로그램 참가 신청은 오늘(5일) 오전 10시부터 부산국제건축제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 접수로 진행된다.

김봉철 부산시 건축주택국장은 “부산국제건축제가 시민들이 일상에서 좋은 건축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보고, 건축가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모두가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희태/기자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2023 부산국제건축제 9.20(수)~9.24(일) 벡스코 제1전시장

문경시,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방문처리제 운영

현장 밀착형 민원상담으로 많은 호응 얻어



문경시 종합민원과는 8월 30일(수), 영순면 울곡2리, 달지2리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방문처리제'를 운영해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방문처리제'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방문하여 토지 관련 민원을 상담 및 접수하는 주민밀착형 민원 서비스로, 문경시 종합민원과의 한국토지정보공사 문경지사가 합동처리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번 지적민원 현장방문처리제는 이번 여름 내린 많은 비로 재해를 입은 영순면을 찾아 지적민원 접수 및 상담, 조

상당찾기 서비스 및 특별재난지역선포에 따른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내용을 홍보하는 한편,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서옥자 종합민원과장은 "지적민원 현장방문처리제를 통해 그동안 궁금하고 불편했던 사항이 조금이나마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한편, 문경시 종합민원과는 지적민원 현장방문처리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앞으로도 현장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윤근수/기자

관악구, 강력범죄 예방 위해 현장 순찰 대폭 강화

4일 오후 5시, 민·관·경 총 15명 참여...취약지역 집중 순찰 및 일상회복 도모

관악구가 지난 4일 오후 5시 신림역 일대에서 강력범죄 예방과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한 '민·관·경 합동 순찰'을 실시했다.

합동 순찰은 신림동 자율방범대, 관악경찰서장, 당곡지구대 경찰, 관악구 공무원 등 15명이 참여해 별빛내린천, 신림동 상업지구, 신림역 등을 집중순찰하며 범죄 취약 요소를 점검하고 일상 회복을 도모했다.

이날 순찰에 함께 참여한 박준희 구청장은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전담팀을 구성하고, 현장 순찰을 대폭 강화하는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청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평화로운 일상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전한 관악 조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구는 경찰, 민간과의 적극 협력으로 '민·관·경 합동 순찰'을 강화했다. 자율방범대, 관악구 공무원, 지구대·파출소 경찰로 구성된 21개 조, 순찰반 120여 명이 동별 다중밀집 지역, 범죄 우범지역, CCTV 사각지대 등을 중심으로 합동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야간에는 '자율방범대' 순찰을 강화해 동별 취약지역을 지정 순찰하고, 순찰 횟수도 동별 월 12회에서 16회로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방검복 등 안전 장비를 지원해 자율방범대원의 안전도 확보할 예정이다.

주요 공원과 관악산 숲길 등 안전 취약지역에는 '안전지킴이'를 배치해

강성원/기자

대구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대형감량기' 운영 실시

음식물류 폐기물 대형감량기 7대 설치

대구 중구는 남산롯데캐슬센터 스키아(재마루길 77)와 동인상정그린코아(동덕로 30길 53)에 '음식물류 폐기물 대형감량기' 7대를 설치하고 9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다.

'음식물류 폐기물 대형감량기'는 탈수, 건조, 발효 등의 방법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를 최대 85%까지 감량하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 후 발생한 부산물은 퇴비 등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장비다. 음식물쓰레기를 발생지에서 직접 처리함으로써 기존의 수거-운반 과정에서 발생했던 오염물질, 악취, 해충 등의 문제 해결은 물론 처리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한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대형감량기 설치는 자원순환경제로 나아갈 수 있는 긍정적인 수단"이라며 "감량 효과 및 경제성, 주민 만족도 등을 분석해 대형감량기 보급을 더욱 확대하고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관내 공동주택 34개소에 내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대형감량기 설치에 관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희망 공동주택 중 설치 공간 등 현장 여건과 가구 수를 고려해 음식물류 폐기물 대형감량기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동현/기자



태백시, 추석 명절 대비 전기차 충전시설 현장점검 실시



태백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22일까지 관내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충전시설의 관리상태, 바닥 충전구역 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동시에, 시는 관내 공공기관 및 주요 관광지 내 충전시설도 점검하여 충전방해 행위 및 고장에 따른 안내문 부착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촉진 등에 관한 법의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내 충전방해행위가 금지됨에 따

라, 안내문 부착 등을 통해 명절기간 동안 방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운영 중인 전기차 충전구역의 고장 여부, 주변 청결상태, 전기차 진입 편입에 대한 사항도 병행하여 점검할 예정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고장 및 운영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점검을 통해 민원을 최소화하며 향후 태백시의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사업 확대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유상근/기자



광명동굴에서 만나요

광명도시공사 Gwangmyeong Urban Corporation

광명동굴 GWANGMYEONG CAVE

영등포구 고립·운둔 청년을 위한 가상 회사, 니트컴퍼니 영등포점에 입사하세요

9~11월, 고립 위기 청년 20명을 위한 가상 회사 니트컴퍼니 운영

영등포구가 9월부터 11월까지 '니트컴퍼니 영등포점'을 운영해 고립 위기에 처한 운둔·니트 청년들의 일상 회복과 활력 증진에 앞장서고 나선다.

니트족(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이란 교육, 고용, 훈련 등을 모두 거부하는,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를 뜻하는 신조어이다.

올해 1월 서울시에서 발표한 고립·운둔 청년 실태조사에 의하면 서울 청년 4.5%인 12만 9천 명 정도가 고립·운둔 청년으로 집계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구는 무직인 청년들이 출근 가능한 가상 회사 콘셉트의 '니트컴퍼니 영등포점'을 운영, 청년들이 고립에서 벗어나 소속감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개인 역량을 강화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니트컴퍼니는 무직 청년들이 가상 회사에 입사해 온·오프라인 출퇴근, 사내 활동 등 회사 생활을 경험해 보는 참신한 롤플레이팅 프로그램이다.

실업으로 소속감이 사라져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매일 잠자기 전 '오늘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다'는 자괴감이 빠지는 등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니트컴퍼니 영등포점에 입사할 수 있다.

니트컴퍼니 입사의 첫 관문은 바로 거꾸로 면접이다. 거꾸로 면접은 입사 희망자가 면접 위원에게 역질문하는 온라인 면접으로 입사 희망자의 입사 동기를 강화한다. 면접 후에는 팀 배치(10명씩 2개팀), 팀원 소개, 근무방법 안내 등 니트컴퍼니 입사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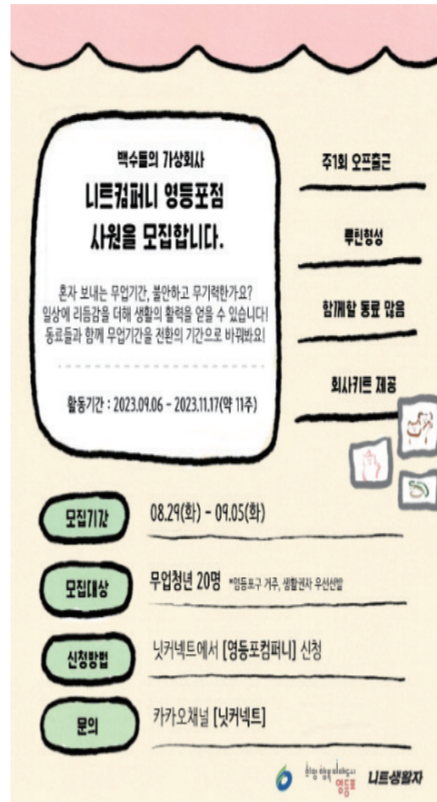
니트컴퍼니 입사자는 ▲매일 온라인으로 출퇴근하고, 주 1회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오랑으로 직접 출근해 일상생활의 리듬을 되찾는다. 주중에는 업무 인증을, 휴일과 병가, 월차인 경우는 생존 인증을 해야한다. 또한 관계 형성과 활력 증진을 위해 ▲명상, 다도, 전시회 관람 등 월 1회 이상 야외 활동도 참여한다. ▲관심사가 맞는 사원 간 영

상 클럽, 디자인 클럽 등 역량 강화를 위한 사내 클럽 운영의 기회도 주어지며, ▲11주간의 회사 생활이 종료되면 그간의 활동 기록 영상을 상영하고 니트 컴퍼니에서 근무한 소감을 공유하는 중무식도 갖는다.

니트컴퍼니에 관심 있는 39세 이하 무직 기간 1개월 이상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9월 5일까지 닷넷에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모집 인원은 총 20명이며, 영등포구 거주자를 우선 선발한다. 그 밖에 공금한 사항은 닷넷 카카오톡 채널 또는 유선전화로 통해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디지털 시대의 가속화로 인해 특히 청년층에서 사회적 단절 문제가 커지고 있다. 니트컴퍼니 영등포점이 고립된 청년들의 일상 회복과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고립감 해소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영등포만의 다양한 특화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박황신/기자



**특수분야 가상회사
니트컴퍼니 영등포점
사원을 모집합니다.**

본사 보내는 무직기간, 불만하고 무기한까지? 일상에서 리듬감을 위해 생활의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무직기간을 전환의 기간으로 바꿔보세요!

활동기간: 2023.09.06 ~ 2023.11.17(약 11주)

모집기간: 08.29(화) ~ 09.05(화)

모집대상: 무직기간 20명 (영등포구 거주, 생애경력 우수인)

신청방법: 닷넷에서 [영등포컴퍼니] 신청

문의: 카카오톡채널 [닛넷컴퍼니]

주최: 영등포구청
주관: 영등포구청
협력: 서울청년센터 영등포오랑

은평구, 건설 분야 경력 보유 여성 취업 지원... '오피 Berry Much' 시범 운영

오는 4일부터 22일까지 은평구 건설 분야 경력을 가지고 있는 30~50대 여성 은평 구민이면 신청 가능

서울 은평구는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돼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은평구 여성을 대상으로 '오피 Berry Much'를 시범 운영한다. '오피 Berry Much'란 은평, 달콤한(Berry), 넘쳐나는(Much)의 합성어로 '일하기 좋고 일해서 행복한, 달콤함이 넘쳐나는 은평'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는 건설 분야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직 여성들에게 직업교육 비용을 지원해 주고 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집 기간은 지난 4일부터 오는 22일까지다. 지원 자격은 적극적인 구직 의사가 있는 은평구 거주자 30~50대 여성으로, 건설 관련 분야 직무 경력이 있거나 건축 관련 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미취업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건설 분야 전문성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교육비를 지원받게 되며 교육 수료 이후 관내 건설 분야 사업체와 매칭을 통해 취업 지원도 받는다.

교육 일정은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이며, 3개월 동안 건축 관련 프로그램 교육과 건축 기본 교육으로 진행된다. 은평구 내 컴퓨터 관련 학원에서 오토캐드와 스케치업 건축 관련 프로그램 수업을 진행한다. 건축 기본 교육은 은평건축사회 소속 건축사의 강의로 건축법, 건축 용어, 현장 조사 등 소양 교육을 배우고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신청은 은평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은평구 건설 분야 경력 보유 여성 취업지원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해당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건설 분야 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경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개인의 경제활동 재개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서울 중구, 2023일자리박람회 & 사회적경제축제 열린다

13일 일자리박람회 & 사회적 경제축제 '내:일 바람' 개최

2023 사회적경제축제 : 일자리박람회

중구에 부는 내:일 바람 당신이 원하는 일터의 시작 중구 내:일 DAY 2023.09.13(수) 중구청

사회적경제축제 (09.30 ~ 17.00)
사회적기업 제품 판매 및 체험부스, 다양한 이벤트, 상품 전시
서울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서울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문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02-3966-5202)

일자리박람회 (09.06 ~ 17.00)
13일 일자리박람회
다양한 직업 소개, 취업 상담, 기업 상담, 구직 상담, 구직 상담, 구직 상담
문의: 구직지원센터 (02-3966-5000, 5002)



서울 중구가 오는 13일(수) 중구청에서 일자리박람회와 사회적경제축제 '내:일 바람'을 개최해 지역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일자리 정보를 한데 모아 제공한다.

구청 7층 강당에선 '좋은 일(JOB)로 내:일((JOB)을 열다! 일자리박람회'가 펼쳐진다. 롯데백화점, 스타벅스, 토요코인서울동대문1 등 지역 내 우수기업 15곳이 참여한다. 인사 담당자가 박람회 현장으로 나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직접 취업 상담과 면접을 진행한다. 총 120여 개의 일자리가 중구민을 기다린다.

이번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대부분 중구 일자리거버넌스 참여 기관들이다. 중구 일자리거버넌스는 지난 7월 중구민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구성된 민간협의체로 이번 박람회에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구직자를 위한 취업 상담에서도 중구 일자리거버넌스의 활약이 이어진다. 서울고용센터, 서울중장년내일센터에서 국민취업제도 안내, 생애경력설계, 이력서 교정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타로로 보는 취업운세, 퍼스널 컬러 진단 등 취업과 관련된 색다른 부대 행사도 마련된다.

취업포털 인크루트(Incruit)에서도 9.7(목)부터 9.13(수)까지 7일간 '중구 온라인 채용관'을 운영한다. 신세계백화점 등 30여 업체에서 채용에 참여할 예정이다.

구는 박람회가 끝난 후에도 미취업자와 기업 매칭, 추가 면접, 개별 컨설팅 등을 이어가는 등 지속해서 관리한다. 이날 직접 참여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을 대신해서 중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에서도 기업의 채용 안내 등을 돕는다.

일자리 박람회에 앞서 13일 오전에는 사회적경제축제가 열린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자리로, 사회적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취약계층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준비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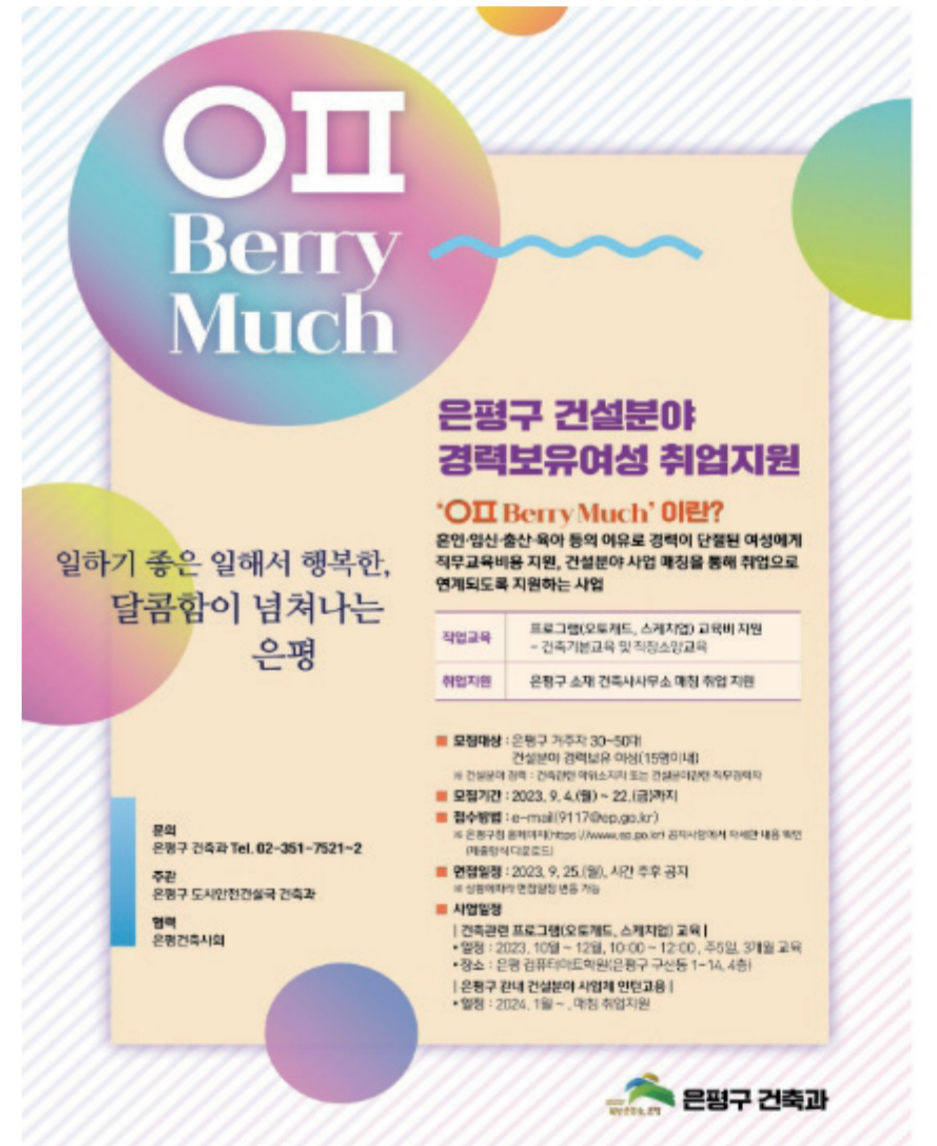
사회적경제 컨퍼런스는 3층 기획상황실에서 10시부터 12시까지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다. 주민, 관계자 등 40명이 참여해 집수리, 돌봄 등 지역사회 서비스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네트워크를 다지는 시간을 갖는다.

오후 1시 30분부터는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판매 및 체험부스가 중구청 앞 광장에서 운영된다. 지역 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참여 주민 등 총 25개 기관 및 조직이 참여한다. 판매부스에선 베이커리, 고추장, 반찬, 천연염색 상품, 로컬 농산물, 신중부시장 건어물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우수 제품을 선보인다. 발달장애인이 만든 커피, 지역 내 7개 서점의 조합에서 판매하는 서적 등 사회공동체의 이익도 함께 생각하는 사회적기업의 다양한 시도를 만나볼 수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지역 내 구직자, 기업, 사회적경제 조직 등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만나 소통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되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구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자리정책을 펼쳐 활기가 넘치는 경제 생태계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오피 Berry Much

은평구 건설분야 경력보유여성 취업지원

'오피 Berry Much'이란?
은평·임신·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직무교육비용 지원, 건설분야 사업 매칭을 통해 취업으로 연계되도록 지원하는 사업

일하기 좋은 일해서 행복한, 달콤함이 넘쳐나는 은평

직업교육: 무료그림(오토캐드, 스케치업) 교육비 지원 - 건축기본교육 및 직인소양교육

취업지원: 은평구 소재 건축사무소 매칭 취업지원

모집대상: 은평구 거주자 30~50대 건설분야 경력보유여성(15명 이내)
* 건설분야 경력: 건축관련 학위 소지 또는 3개월 이상 직무경력

모집기간: 2023. 9. 4 (월) ~ 22 (금)까지

접수방법: e-mail(0117@ep.go.kr)
* 은평구청 홈페이지(www.ep.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내용확인필요)

신청일정: 2023. 9. 25 (월), 시간: 하루 24시간
* 신청처: 은평구청 여성지원팀

사업내용: 1. 건축관련 무료그림(오토캐드, 스케치업) 교육 | * 일정: 2023. 10월 ~ 12월, 10:00 ~ 12:00, 주 5일, 3개월 교육 * 장소: 은평구 컴퓨터교육원(은평구 구산동 1-14, 4층) | * 은평구 관내 건설분야 사업체 매칭교육 | * 일정: 2024. 1월 ~ , 매칭 취업지원

문의: 은평구 건축과 Tel. 02-351-7521-2
주관: 은평구 도시안전건설과 건축과
협력: 은평건축사회

은평구 건축과



어머니 품장흥

2023 대한민국 통합의학 박람회

KOREA INTEGRATIVE MEDICINE FAIR 2023

2023. 9. 8.(금) - 9. 14.(목) / 7일간 /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

주최: 전라남도 JeollaNamdo, 장흥군 Jangheung County, 주관: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추진위원회

경북교육청'9.4. 공교육'회복의 날'다짐식과 추모식거행

'함께 추모하고 서로 다짐하다'

경북교육청은 4일 18시 30분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에서 '공교육 회복의 날' 교육공동체 다짐식 및 추모식을 거행했다.

다짐식과 추모식은 안타깝게 숨진 서이초 선생님을 추모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관계 회복을 통해 상호 존중하는 문화 조성과 교육활동 침해 예방 활동을 위한 안전한 교육활동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자리이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다짐식은 서이초 선생님 추모식에 이어 교육공동체 다짐식, 교권 보호 긴급 지원단 출범식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행사장에는 1일부터 경북교육 가족과 일반인도 추모할 수 있는 별도 추모 공간을 조성했다.

추모식은 추모사와 추모 시 낭송, 추모 공연을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했다.

교육활동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출발점으로 학생-학부모-교원이 함께 상호

존중과 이해를 다짐하는 '교육공동체 회복 다짐식'도 가졌다.

다짐식에서는 학생, 교사, 학부모 대표가 함께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소망을 발표했고, 이어 교육공동체 회복 다짐문 선포 및 건의문도 학생, 교사, 학부모 대표들이 함께 낭독했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치료 및 법률 지원을 제공하여 교원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도내 22개 교육지원청 '교권 보호 긴급 지원단' 출범식도 진행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교권 보호 긴급 지원단'은 법률 상담과 특이 민원 대응을 지원하고, 아동학대 수사 개시로 직위해제를 결정하기 전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과 의견수렴으로 직위해제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경북교육청은 8월 30일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에는 피해 교원 보호와 엄중한 대처를 통해 학교의 교육활동과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육공동체 회복 종합



방안'을 발표했다.

종합방안은 △민원 대응팀 운영 △교원치유지원센터 확대 이전 △교권 보호 긴급 지원단 운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응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중식 교육감은 "공교육 회복은 교사들만의 다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교

육공동체가 함께 해야 한다. 공교육을 멈춰 세우고 공교육의 회복을 기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다짐식을 통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서로 존중하는 회복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윤근수/기자

서울시교육청, 학교정보화지원체계(테크센터) 개통, 학교현장 디지털 미래교육 지원에 총력

학교현장 네트워크 집중진단 및 최적화, 방송장비 컨설팅, 학내망 통합관제 등 실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9월부터 학교현장의 디지털 미래 교육 지원을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11개 교육지원청에 "학교정보화지원체계(테크센터)"를 구축하여 디지털 교육행정 혁신 인프라 최적화를 지역별로 촘촘히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테크센터 구축은 학교현장의 정보화 인프라 관리에 대한 전문인력 지원 요구 증대 및 디지털기(디빗) 사용 시 인터넷 접속 불안에 따른 문제점 발생에 따라, 교육지원청을 거점으로 관내 학교 현장에 정보화 전문인력을 지원하여 직접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아울러 학교현장지원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및 청렴연수를 사전에 실시하여 안전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 8월 4일부터 디지털 선도학교(46교)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집중진단 및 최적화를 실시했고 중학교 전체(390교)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중학교 디지털 수업 안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초·중·고 방송장비 컨설팅 및 담당 교사 연수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방송장비 운영 시 애로사항을 해결한다.

2024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유·

무선 네트워크 집중진단 및 최적화 지원 확대 △학교 네트워크 교육청에서 통합 유지관리 지원 △디빗 활용지원 △학교업무 자동화시스템(RPA) 도입 등으로 원활한 디지털 수업 지원 및 학교 업무경감을 도울 예정이다.

2025년에는 △학내망 원격 통합관제시스템 도입 △정보화 관리 종합 포털시스템 구축 등 학교 정보화 인프라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제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 테크센터 구축으로 서울시교육청은 디지털 교육혁신을 위한 공교육 질 제고 기반을 조성하고, 교육부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에 따른 2025년 3월 영어, 수학, 정보 교과 등의 디지털 교과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테크센터를 통해 각급학교 ICT 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원활한 디지털 교수 학습이 가능해지고, 디지털 행정혁신 및 안정적 인프라 관리지원으로 교원 업무가 대폭 경감되리라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 디지털 수업을 위한 전문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경북교육청, 국제지구과학 올림피아드 은메달 3개 획득

경북교육청 16회 국제지구과학 올림피아드(IESO)에서 국가대표로 참가한 포항영신고등학교 3학년 권다훈, 배준용 학생이 은메달 3개를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국제지구과학 올림피아드는 지구과학 분야 영재 조기 발굴과 친선 도모를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는 대회로 올해는 지난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중국에서 전 세계 32개국 179명이 참가하여 비대면으로 개최됐다.

권다훈 학생은 개인별 필기시험인 'DMT 분야'에서 은메달을 획득하고, 배준용 학생은 지진 분야 연구로 권다훈 학생과 한 팀을 이뤄 'NTFI 분

야'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이번 대회에서 대한민국은 'DMT 분야'에서 은메달 4개, 'NTFI 분야'에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여 종합 9위를 차지했다.

포항영신고등학교는 학생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도록 진로 연계 자율 동아리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권다훈, 배준용 학생은 '태풍의 눈'이라는 "지구과학 교과동아리(지도교사 신동훈)를 통해 정규교육과정과 연계한 심화 탐구 학습이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포항영신고등학교 2년 연속 수상 쾌거

포항영신고등학교는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높은 수준의 교과 수업지도 노하우 실행으로 최근 2년 동안 국가대표 상비군 2명, 국가대표 3명을 배출하는 영광을 거두어 명실상부한 명문고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최한용 창의인재과장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로 잘 성장해 가도록 학교 교육활동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데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부산교육청,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권한 보장 나서



부산시교육청이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지난 1일부터 시행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원활한 교육 현장 안착을 위해 관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생활규정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고시 공포 및 시행은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과 올해 6월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권한 보장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이다.

고시의 주요 내용은 반복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보호자의 인계를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물품 조사뿐만 아니라 학생 분리, 물리적 제지 등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등이다.

부산교육청은 고시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T/F 및 컨설팅단'을 구성·운영한다. 이들은 현장에서 고시를 근거로 학생들을 지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르면 10월 중순부터 컨설팅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곽정록 시교육청 인성체육급식과장은 "이번 고시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권한을 위한 가이드 라인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학생 스스로 학교생활 규정을 지키는 문화 조성하고 교권 침해 없는 학생생활지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언제나 시민의 곁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제9대 남원시의회가 되겠습니다.

'강원 내이치로드'관광도로 국내 최초 상표 특허권 결정

관광도로 활성화 내이치로드 투어 인증 챌린지 등 다양한 홍보마케팅 본격 전개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8월 21일 국내 최초로 특허청으로부터 '강원 내이치로드' 브랜드 상표 등록에 관한 특허 출원 결정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강원 내이치로드'는 자연의 선물과 청정여행의 대명사라는 의미를 담아 2021년 공모를 통해 선정된 명칭이며, 도내 주요 도로(국도 및 지방도 등)의 숨겨진 비경을 중심으로 7개 코스 1,298km로 조성된 관광도로를 계획했다.

도는 강원 내이치로드(관광도로) 활성화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 3월 사단법인 강원관광재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강원 내이치로드의 홍보 마케팅을 전면 추진하고 있다.

사단법인 강원관광재단(대표 강옥희)은 상표권 특허 등록 결정을 계기로 본격적인 브랜드 홍보를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주요 홍보사업으로 내이치로드 투어 인증 챌린지, 방송 매체를 활용한 영상 제작, 각종 박람회 참가, 숙박상품 기획 전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내이치로드 투어 인증 챌린지'

는 기존의 스탬프 투어 방식에서 벗어나 신개념 온라인 스탬프 인증방식(EXIF)으로 온전히 여행 과정에 집중할 수 있으면서도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는 콘텐츠다.

챌린지 참여방법은 휴대전화의 위치 활성화 기능을 켜 후 강원내이치로드 코스별 관광명소를 방문하여 직접 촬영한 사진을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홈페이지 로그인' 촬영한 사진 업로드 '인증완료' 3단계로 절차를 단축하여, 여행 중에는 자연과 환경에 집중하고, 집으로 돌아와 여행의 여운을 마무리할 수 있다.

투어 인증 챌린지 이벤트는 오는 11월까지 진행되며, 이벤트 참여자에게는 다양한 경험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이중구 강원특별자치도 도와과장은 "내이치로드 관광도로를 따라 여행을 하다 보면, 청정지역인 강원특별자치도 곳곳에 숨겨진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들원/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년 ICT기금사업 성과발표회·시상식 개최

총 55개 우수기업·협회·유관기관 등 관계자 150여명 참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정한근) 주관으로 9월 5일 오전 10시 30분에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23년 ICT기금사업 성과발표회·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55개 우수기업·협회·유관기관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으며, 지난 1년간 과기정통부 ICT 기금 지원으로 창출된 우수성과를 확산·공유하기 위해 각 산업 분야 우수기업의 성과발표가 진행됐다.

본 행사에서는 ICT기금 성과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의 자긍심 고취와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우수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한 기업 관계자(9명)와 개인 유공자(5명)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성과발표회에서는 ①'AR·VR 기술로 메타 스토어 최초 런칭(스토익엔터테인먼트, 김홍석 대표이사)', ②'인공지능 기반 개인정보 관리 원스톱 자동화(오내피플, 조아영 대표이사)', ③'사람과 소통하는 인공지능, 한국어판 블렌더봇 개발(튜닝, 박규병 대표이사)', ④'인공지능 기반 최적화 의사결정 솔루션 개발(애자일소다, 최대우 대표이사)' 라는 4개의 주제로 기금사업 성과를 공유하여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기금 정책유공 단체 시상식에서는 고속 영상 빅데이터 기술로 철도 안전을 모니터링하는 '실시간 고속 검사·탐지 AI플랫폼'을 개발한 '(주)엘라이트', 세계 1위 시계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DBMS) 응용 솔루션을 개발한 '(주)마크베이스', 인공지능 기반 하이브리드 솔루션을 통해 의사결정 시장을 개척한 '(주)애자일소다', 고성능 컴퓨팅이노베이션허브로 반도체 공정예측 소프트웨어 모듈을 개발·공급한 '(주)경원테크'가 디지털 혁신 분야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미디어·콘텐츠 분야에서는 한국 최초 메타 스토어를 런칭하고, 네이버 Z·MBC와 한류 메타버스의 해외진출을 실현한 '(주)스토익엔터테인먼트',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는 개방형 인공지능 챗봇 데이터를 학교·연구기관에 공개함으로써 사회적 발전에 기여한 '(주)튜닝', 디지털 인프라 분야에서는 고속 인터네트 소재 및 반도체패키징 분야 10미크론급 초격차 기술을 개발한 '(주)노피온', 디지털 인재 분야에서는 온라인 평생학습관리 및 인재

용 매칭시스템 '맘잡고' 플랫폼을 구축한 '(주)맘이렌서'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개인 유공에서는 ICT기금 법제도 개선과 예산 정책 수립에 기여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김건수 과장, 이양지 과장, ICT기금 사업관리에 기여한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민남기 수석,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우수현 팀장, ICT기금 자산운용에 기여한 자본시장연구원 송홍선 선임연구위원이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과기정통부 전영수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우리나라 ICT분야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수상자 여러분께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고 전하며, "본 행사에 수많은 중소·벤처 ICT 우수기업이 민간 협업을 통해 우수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해온 결과이며, 민간 주도로 다양한 가치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우리나라 경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No.	발령 분야	우수사례 선정
1	디지털 혁신/테크	①(주)엘라이트, ②(주)마크베이스, ③(주)오내피플, ④(주)노피온, ⑤(주)인공지능, ⑥(주)인공지능, ⑦(주)인공지능, ⑧(주)인공지능, ⑨(주)인공지능, ⑩(주)인공지능
2	디지털 포용	①(주)인공지능, ②(주)인공지능, ③(주)인공지능, ④(주)인공지능, ⑤(주)인공지능, ⑥(주)인공지능, ⑦(주)인공지능, ⑧(주)인공지능, ⑨(주)인공지능, ⑩(주)인공지능
3	디지털 인프라	①(주)인공지능, ②(주)인공지능, ③(주)인공지능, ④(주)인공지능, ⑤(주)인공지능, ⑥(주)인공지능, ⑦(주)인공지능, ⑧(주)인공지능, ⑨(주)인공지능, ⑩(주)인공지능
4	미디어 콘텐츠	①(주)인공지능, ②(주)인공지능, ③(주)인공지능, ④(주)인공지능, ⑤(주)인공지능, ⑥(주)인공지능, ⑦(주)인공지능, ⑧(주)인공지능, ⑨(주)인공지능, ⑩(주)인공지능
5	사이버 보안	①(주)인공지능, ②(주)인공지능, ③(주)인공지능, ④(주)인공지능, ⑤(주)인공지능, ⑥(주)인공지능, ⑦(주)인공지능, ⑧(주)인공지능, ⑨(주)인공지능, ⑩(주)인공지능
6	디지털 인재	①(주)인공지능, ②(주)인공지능, ③(주)인공지능, ④(주)인공지능, ⑤(주)인공지능, ⑥(주)인공지능, ⑦(주)인공지능, ⑧(주)인공지능, ⑨(주)인공지능, ⑩(주)인공지능
기금 정책성과		①(주)인공지능, ②(주)인공지능, ③(주)인공지능, ④(주)인공지능, ⑤(주)인공지능, ⑥(주)인공지능, ⑦(주)인공지능, ⑧(주)인공지능, ⑨(주)인공지능, ⑩(주)인공지능
우수성과 발전		①(주)인공지능, ②(주)인공지능, ③(주)인공지능, ④(주)인공지능, ⑤(주)인공지능, ⑥(주)인공지능, ⑦(주)인공지능, ⑧(주)인공지능, ⑨(주)인공지능, ⑩(주)인공지능
합계		55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남도 지·산·학·연, 글로벌대학 선정 위해 뭉쳤다

도·아산시·산업·대학·연구기관 글로벌대학 최종 선정 목표 상생발전 업무 협약



충남도와 아산시, 산업체, 대학, 연구기관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정부의 글로벌대학 사업 최종 선정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쳤다.

도는 5일 도청 상황실에서 글로벌대학30 선정 대응과 지자체·산업·대

학·연구기관 간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태홍 지사를 비롯해 박경규 아산시장, 유동훈 충남연구원장, 김승우 순천향대 총장, 문상인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회장, 손지호 한국바이오협회 산업지원본부

장, 최성민 충남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 송승배 충남라이프센터장 등이 참석해 지역과 대학의 공동발전에 힘을 보탬 것을 다짐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글로벌대학 최종선정 지원, 지역 산업분야 인재 양성, 인적·물적 자원 교류, 공동 협력사업 추진 등 지역위기 극복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순천향대는 교육기간·패턴·전공 등을 스스로 설계하는 개인 맞춤형 교육시스템 기반의 대학혁신과 도 전략산업과 연계한 인력양성에 초점을 두고 실행계획 수립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이와 관련 도는 아산시, 순천향대와 공동 추진 중인 휴먼마이크로바이옴 클러스터 등 산업기반조성을 비롯해 연구개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정주 환경개선 등 대학·산업·지역의 공동발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의 주 목적인 글로벌대학 30 사업은 전국 10개 대학에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부는 지난 7월 순천향대 등 15개 대학을 예비지정한 바 있다. 교육부는 다음달 사업실행계획서를

제출받은 뒤 평가를 거쳐 11월 최종 선정 대학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46만명 수준인 대학 입학자원은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20년 뒤에는 26만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23학년도 기준 도내 4년제 대학 신입생 총원율은 93.9% 수준이지만, 학령인구가 감소하면 지역대학부터 위기가 찾아오고, 지역대학의 위기는 지방소멸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글로벌대학 선정에 따른 지역대학 육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 지사는 "글로벌대학은 지역과 대학이 지방소멸이라는 아젠다에 공동 대응해 지역을 살리는 중요 사업"이라며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충남의 핵심과제이자 대표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산·학·연이 앞으로 더욱 탄탄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적극적인 협업 속에서 지역과 대학이 상생하는 모범사례를 만들어야 한다"며 "바이오 등 주력산업과 연계한 대학협력 사업을 전폭 지원해 성공적인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정근/기자

제28회 남한산성문화제

다시, 찬란한 남한산성 9.15-9.17 남한산성도립공원 일원



GCCF 광주시문화재단 | 광주시 ONANJU CITY

www.nsart.or.kr

작가를 꿈꾸는 문학 유토피아

Romantic Port MOKPO

목포 2023 문학박람회

MOKPO LITERARY EXPO

목포문학관 일원 (주행사장) 9.15(금) - 9.17(일)
북교동 일원 (차범석길) 9.14(목) - 9.17(일)



주최·주관 | 목포시

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학예술위원회, 한국문화재단, 전라남도, 전라남도목포교육지원청, 한국출판인회의, 문학과 세상사, ARC-N-BOOK, JEI 제능문학, 재능시상소협회, 책문화네트워크,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